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25 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12월 1일

【1】



■ 동문 연극인들이 공연한 「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습 장면.

케바스터리 5면

동문 연극인 열연에 박수 가득

관객추천

금년은 우리 동창회로서는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다. 모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알차게 치러냈으며, 3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갈 회장단과 관악회 임원들을 확정했다.

개교50주년 기념행사만 간략히 꼽아봐도 3월의 신년 음악회, 7월의 미술대학 동문전, 8월의 동문교향악단 연주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서울대를 널리 알리고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8월에 개교50주년 기념으로 모교 기숙사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준 것은 우리 동창회가 「일하는 동창회」 「모교에 꼭 필요한 동

창회」임을 다시한번 보여준 보람있는 행사였다.

특히 3월의 정기총회에서는 동창회 활성화에 앞장선 현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동창회 문호를 개방해서 각종 단기과정 수료자들을 준회원으로 맞이함으로써 동창회 확대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

대학동창회의 모범이 되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같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모든 동문의 협조와 힘을 빌어서 이뤄낸 행사들이기 때문에 한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최소한 현상유지만 해도 명맥은 이어지는 것이 「동창회」 특성이다. 그러나 서울대동창회는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과거에도 훌륭한 분들이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오면서 노력했고 성과도 많았지만 방대한 규모때문인지 「모래알」이란 별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서울대동창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어느 다른 대학 동창회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동문들의 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모교가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듯이 우리 동창회가 한국대학동창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모든 동문들이 총동창회에 더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 (應)

96년을 보내면서

“상부상조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鄭敬泰(59년 醫大卒)진주지부동창회장

金錫鍵(55년 農大卒)태국지부동창회장



모교가 개교한지 50주년이 되는 1996년, 올해도 벌써 꼬리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누구나 말을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연배의 동문들께서는 이 말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 올해도 보람되고 알차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진주지부 동창회장이라는 어려운 감투를 쓰고 있다보니 동창회를 위해서 한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새 동호회 결성, 친목 다져

올해는 저희 진주지부에도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金在千(70년 法大卒), 河舜鳳(64년 師大卒)동문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테니스, 바둑, 산악동호회 등 몇 개의 동호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악동호회는 매달 정기 월례회를 갖고 있으며 열성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어김없이 등산을

함께 합니다. 앞으로 진주CC이 개장되면 골프동호회도 결성해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창회 기금도 그동안에는 따로 적립된 것이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기금이 모여 현재 1천3백여만원이 모금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적립되면 회원들과 의논하여 특별사업도 펼쳐볼 생각입니다.

진주시에는 약 3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 동문은 3백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하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지부 동창회는 매년 두차례의 연중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춘계 가족동반 등산대회는 진주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월아산에서 열리는데 동문들보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매년 두차례 연중행사 개최

11월말에는 가을행사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한 해동안의 동창회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동창회 계획을 구상합니다.

저희 진주지부는 앞으로도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모교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동문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태내에 만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애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1996년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을 만들기 위해 지난 반세기의 역정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한해의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었음을 축하하며 이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신 학교 당국 교직원 및 총동창회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이 뜻깊은 행사에 해외 동문들을 초청, 일련의 행사에 참여케 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해외 여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들과 대화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정신적 지원 유도

현재 40여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이곳 태국지부는 지난 84년에 10여명의 동문들이 모교의 창학정신을 상징하는 「VERITAS(LUX MEA)클럽」이라는 명칭 하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모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월례모임과 분기별모임, 그리고 연차 정기모임을 통해 동문간 친목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경조사, 기타 직장일에도 상부상조하며 모교와 동창회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한 동창애로 향수 달래

지난 7월에 있었던 연차 정기총회에 서는 특히 同會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



다 생산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사문제나 회원들의 관심분야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 등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회비징수와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우선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는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동창회의 존재가치나 활동을 외면하는 동문이 한사람도 없도록 지혜로운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조국은 지금 추운 겨울날씨겠지만 열대의 나라 이곳 태국은 이제 막 우기가 지나고 약간 서늘한 기운을 맞고 있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백화점이나 호텔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해를 보내야 하는 우리 태국동문들은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희망찬 1997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교의 창학정신을 더욱 높이 받들어 동문 상호간의 발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동문의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峻」, 35X 50cm, 제16회 훈올회 작품작

미술작품

崔愛敬作

〈작가 약력〉

- △60년 美大卒
- △국전 입선 4회
- △현대작가 초대전(조선일보)
- △미술단체 연립전(국립현대미술관)
- △아세아 현대미술전(동경)
- △한국화회전
- △훈올회전
- △56서울전

개교 50주년 기념 「난·쏘·공」 공연

동문 연극인...광주·서울·부산서 호평



지난 30일 연극공연후 리셉션에서 鮮于仲皓총장이 축사를 했다.

모교 출신 연극인들이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연극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지난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이번 선·후배 합동공연은 지난 66년 개교 20주년 기념 「산

돼지」 공연에 이어 두번째이며 연극전공학과가 없음에도 수많은 극작가, 연출가, 평론가, 극단 대표를 배출한 서울대의 잔치 마당이었다.

삼성그룹이 협찬한 이번 공연에는 예술감독 金芝河(본명 金英一 66년 文理大卒·시인),

연출 李相宇(70년 文理大入·극단 차이무 대표), 제작 具滋興(70년 文理大卒·서울문화기획단 대표), 기획 李壽贊(75년 文理大卒), 미술 尹政燮(77년 美大卒·연극원 교수), 조명 金光林(75년 文理大卒·연극원 교수), 의상 趙又玄(78년 家政大卒·인하대 교수), 음악 金敏基(78년 美大卒·극단 학전대표), 연주 金永東(75년 音大卒·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장)동문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李樂薰(54년 美大入·배우), 沈洋弘(71년 文理大卒·배우), 鄭明洙(71년 文理大卒·Federal Express상무), 閔鼎基(72년 美大卒·화가), 車美禮(72년 文理大卒·문화일보 문화부장), 文聖惠(73년 音大卒·피아니스트), 崔鍾律(73년 美大卒), 金明坤(76년 師大卒·극단 아리랑 대표), 朴鎔秀(81년 音大卒·배우), 金義性(88년 經營大卒·배우)동문 등 현역 배우, 재학시절 명연기를 펼쳤던 동문, 재학생 등이 출연했다.

지난 11월 22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KBS광주방송국 광고협찬과 광주지부동창회(회장 吳炳文)에서 1천만원을 후원,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서울공연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동송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이어졌다.

한편 12월 9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될 공연에는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宋斗瀾)가 각 단과대학동창회장단의 회의를 거쳐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임 외무부장관에 柳宗夏동문 보전복지부장관에 孫鶴圭동문

金泳三(51년 文理大卒)대통령은 지난 11월 6일 孔魯明(61년 法大卒)외무부장관 후임으로 柳宗夏(59년 文理大卒)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는 潘基文(70년 文理大卒)의전수석비서관, 의전수석비서관에는 李海淳(66년 文理大卒)외무부 본부대사를 기용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보전복지부장관에 孫鶴圭(73년 文理大卒)국회의원을 임명했다.



柳宗夏장관



孫鶴圭장관

洪斗杓 한국방송공사 사장 「캠퍼스음악회」 녹화테이프 기증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洪斗杓(사진)사장(61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이 지난 10월 15일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KBS캠퍼스음악회」 행사 녹화 테이프 1백개를 본회에 기증했다.

이 녹화 테이프에는 모교 음대 金正吉교수가 작곡한 「개교 50주년 축전서곡」 연주장면과 테너 朴世源교수, 피아니스트



白惠善교수, 소프라노 曹秀美동문 등이 출연, 열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호주 멜본지부

신임회장에 金萬石동문 선출

호주멜본支部同窓會(회장 南基英)는 지난 7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金萬石(62년 法大卒·호주연방정부 이민재판소 근무)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회회장은 지난 10월 5일

멜본 시내 Studley공원에서 야유회를 열었으며 16일에는 駐호주 權丙鉉(63년 法大卒)대사를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한편 97년 2월말에는 추계야유회를 멜본 근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變)

만평

李元馥



일단 上陸은 성공, 그러나 이제부터다!

'96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 활동보고

동문들의 화합과 참여도 제고에 주력

모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동창회의 활동이 돋보인 해였다. 96년을 마감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의 올해 활동을 항목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가정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겸 신입회원환영회: 1월 24일 리베라호텔 ①李仁子 회장 연임 ②부회장 등 임원



지난 5월 11일 열린 가정대동창회 스승의 날 행사.

선출

▲이사회: 2월 29일, 4월 20일, 6월 1일, 8월 31일, 10월 5일, 12월 7일 「서울탑」
▲사은회: 5월 11일 「삼정」 ①기념품 증정
▲임원진 재미목련회 모임 참석: 8월 16일 美 LA ①발전기금 모금방안 논의
▲모교 방문 행사: 11월 2일 모교 문화관 ①유공 동문 감사패 전달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목련장 학생 2명에게 2백21만6천원 지급

3 모교지원

▲모교 발전기금 2억8백70여만원 모금
▲「가정학 50년사」 발간 지원비

5백만원, 자료사진 지원

▲생활과학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축하화환 증정

4 간행사업

▲'96~'97년도 주소록, 수첩 발간



7월 5일부터 15일까지 모교 박물관에서 열린 「미술대학동창전」.

계 1천1백48만8천원 지급

3 모교지원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격려 및 나이팅게일 선서식 지원 ①1천5백만원 간호대건축기금 출연, 6백만원 장학기금으로 적립
▲간호과학연구소 연구비 등 1천2백만원 지원

4 간행사업

▲동창회보 연2회 발간

공과대학동창회

▲동창회보 연2회 발간

공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신년하례회: 1월 15일 힐튼호텔
▲이사회: 4월 24일 호암생활관 ①개교50주년 기념사업 논의 ②동창회 사업 논의
▲정기총회: 5월 19일 교수회의실 ①鄭哲奎 신임회장 선출 ②정년퇴임 교수 기념품 증정
2 간행사업
▲「서울공대」 소식지 발간

농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임원진 충북지회 방문: 2월 15일
▲정기총회: 5월 11일 농생대 「사색의 동산」 ①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패 전달 ②전임 임원 공로패 증정 ③'95 결산보고 및 '96 예산안 확정
▲개교90주년 기념식: 10월 12일 농생대 캠퍼스
2 간행사업
▲모교와 공동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발간: 제6호 발간
▲회원명부 발간

미술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4월 26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①'95 수입 및 지출 보고 ②개교50주년 기념 미대동창전 협의
▲개교50주년 기념 「미술대학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낙산장 학생 84명에게 7천56만원 지급

3 모교지원

▲모교발전기금, 근대사범교육백주년 기념관전립기금 12억 출연

4 간행사업

▲낙산회보 발간: 연4회 발간

사범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6월 1일 영등포 OB공장 회의실 ①閔丙駿회장 연임 ②영전동문 축하화환 전달 ③정년퇴임 동문 공로패 증정

2 간행사업

▲동창회보 발간

상과대학동창회



상대동창회는 올해 68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원: 10월 14일

3 간행사업

▲동창회보 발간: 10월 14일

법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신년 인사회: 1월 30일 프라자호텔 ①영전·취임축하패 증정
▲정기총회: 5월 14일 프라자호텔 ①李奭熙 신임회장 선출 ②유공 동문 감사패 증정 ③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패 전달 ④제4회 자랑스런 서울법대인 시상

2 장학사업

▲회장단회의: 3월 26일 상의클럽

▲국회의원 당선 축하모임: 5월 22일 상의클럽

▲이사회: 12월 5일 상의클럽

▲정기총회 겸 송년회: 12월 23일 상의클럽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향상장 학생 68명에게 3천4백만원 지급

3 모교지원

▲최우수졸업자 시상: 6명에게



모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간호대동창회 바자회.



지난 11월 16일 열린 수의대동창회 정기총회.

개교 50주년기념 다양한 행사 펼쳐

상장 및 부상 수여
▲신입생 및 졸업생 축하기념

월 23일, 6월 14일, 7월 26일 퍼
시픽호텔



지난 10월 6일 열린 제15회 「약대 동창의 날」행사.

품 증정
④ 간행사
▲동창회보 「향상의 탑」 연 4회 발간
⑤ 기타
▲제1회 상대동창회장배쟁탈 바둑대회: 9월 15일 서초동 「일품기원」

수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5월 22일 수의대 합동강의실 ①행운의 열쇠, 기념품 증정
▲정기총회: 11월 16일 동서울호텔 ①尹志炳 신임회장 선출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1백40만원 지급

약학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신년교례회: 1월 18일 「KOE-X」
▲정기총회: 2월 23일 동창회관 관악홀 ①유공 동문 표창 ②학위취득 축하패 증정
▲「藥窓會」초청 임원진 일본 방문: 4월 7일~9일
▲제15회 「동창의 날」 행사: 10월 6일 약대 신관 지하로비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5백만원 지급
③ 모교지원
▲모교 학장 활동지원금 지원: 2백만원 지원
④ 간행사
▲동창회보 발간: 10월 제37호 발간
▲회원명부 발간

음악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이사회: 1월 22일, 2월 8일, 2

▲정기총회겸 신년모임: 3월 1일 힐튼호텔 ①「자랑스런 동문가족패」 시상
▲개교50주년 기념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8월 25일 예술의전당
② 장학사업



지난 5월 29일 열린 경영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2백56만2천원 지급
③ 간행사
▲동창회보 1, 2호 발간

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신년교례회: 1월 3일 모교 교수회의실
▲상임이사회: 2월 9일, 4월 8일 한남클럽, 5월 13일, 8월 20일, 9월 13일 하얏트호텔, 11월 13일 한남클럽
▲제13회 '바둑대회': 2월 11일 모교 교수회의실
▲정기총회: 3월 18일 하얏트호텔 ①유공 동문 감사패 증정 ②모범 지회 표창
▲동기회장회의: 5월 13일 하얏트호텔, 10월 10일 모교 회의실
▲제18회 테니스대회: 5월 18일 모교 병원 테니스코트
▲지회장회의: 9월 13일 하얏트호텔

▲이사회: 12월 11일 신라호텔
▲함춘 송년의 밤: 12월 11일 신라호텔
② 간행사
▲동창회 소식지 발간: 매월 발간
▲회원명부 발간: 7월
③ 기타
▲매년 신입회원 기념품 전달
▲제60회 의사국가고시 전국 수석 합격자 공로패, 부상 증정
▲모교 학생활동 지원 및 학생 간부와의 간담회 개최
▲함춘회관 건립 사업 추진

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5월 23일 모교 1층 강의실 ①전임 임원진 감사패 증정
2. 장학사업
② 1·2학기 장학금 지급: 8명에게 1천2백만8천원 지급



지난 5월 1일 열린 행정대학원동창회 제36차 정기이사회.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8명에게 9백49만6천원 지급

경영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상임이사회: 5월 2일 전경련회관, 10월 24일 르네상스호텔
①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정기총회: 5월 29일 조선호텔
▲기별 간사회의: 11월 5일 서초동 「민속관」
▲제30주년 기념사업 발전준비위원회: 11월 13일 중구 「도원」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4명에게 2백12만6천원 지급
③ 모교지원
▲李燦河회장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출연
④ 간행사
▲회보 발간: 분기별 1회 발간

신문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1월 19일 계동 「산내리」

행정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겸 이사회: 5월 1일 롯데호텔 ①당선 동문 축하패 증정

▲정기총회: 5월 30일 롯데호텔
①영전동문 축하패 증정
▲임시이사회: 10월 29일 롯데호텔

▲임시총회: 11월 26일 롯데호텔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8명에게 8백40만8천원 지급

③ 모교지원
▲행정대학원 소식지 발송비 2백85만원 지원

④ 간행사
▲행정과 정책논총 제4권 발간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환경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3월 21일 「대호」 ①朴重培 신임회장 선출 ②회칙 개정
▲이사회: 6월 4일 사학연금회관 ①전임 회장 감사패 전달, 10월 8일 선릉역 「대호」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3백만원 지급
③ 간행사
「도시·환경소식」 34호~39호 발간

(정리=金志妍기자)



지난 3월 21일 열린 96년도 환경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수의대동창회

신임회장에 尹志炳동문 선출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金範來)는 지난 16일 동서울호텔 연회장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範來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주 만나야 친목 도모는 물론 모교 후원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좀더 활성화된 동창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회계보고와 차기 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소식지 발간과 회비납부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6년간 회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해온 金範來회장의 후임으로 尹志炳(58년卒·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사장)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가정대동창회

모교발전기금 3억여원 모금



지난 11월 2일 모교 방문 행사를 가졌다.

家政大學同窓會(목련회 회장 李仁子)는 지난 11월 2일 모교 문화관에서 개교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교육 1회 졸업생 5명중 4명이 참석하는 등 동문 및 교수 1백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모교 발전기금 모금은 동이 성공을 거둬 현재 3억2천7

백여만원이 약정, 모금됐음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安承堯가 정대학장은 일정액 이상을 출연한 동문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각각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모교 홍보용 비디오와 「서울대학교 가정학 50년사」를 조망한 슬라이드를 관람한 후, 리셉션에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志)

경대원동창회

개설30주년 행사 협의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는 지난 5일 「민속관」에서 1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별 간사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개설30주년 기념사업 참여방안을 협의하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중구 소재 「도원」에서 「제30주년기념 사업발전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

의대동창회

12월 11일 송년회 준비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12월 11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연락처: 740-8183)

마산지부

12월 12일 총회 개최

마산支部同窓會(회장 姜來烈)는 12월 12일 오후 6시30분 마산 소재 롯데크리스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임원개선을 할 예정이다. (연락처 0551-46-7670)

법대동창회

「백주년기념관」현관식

法科大學同窓會(회장 李煥熙)는 12월 18일 오후2시 관악캠퍼스에서 「법대 1백주년 기념관」현관식을 개최한다. (연락처 735-3614)

상대동창회

정총 12월 23일 예정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12월 23일 오후 6시30분 「상의클럽」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한다. (연락처 753-2277)

전자공학과

「자랑스런 전자동문상」 시상



李梓旭동문



吳明동문



洪錫炫동문



鄭鎬宣동문



李珉和동문

전자공학과동창회(회장 李忠雄)는 지난 25일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李梓旭(65년卒 TMC사장), 吳明(66년卒 동아일보사장), 洪錫炫(72년卒 중앙

일보사장), 鄭鎬宣(75년 大學院卒·국회의원), 李珉和(76년卒 메디슨사장)동문에게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회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97년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대10회

졸업 40주년 기념 중국여행

법대10동기회(회장 李永旭)는 최근 졸업40주년을 기념해 중국으로 11박12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회원들은 백두산 등반 순례를 시작으로 북경의 자금성, 만

리장성, 서안의 진시왕릉과 병마용 발굴 유적을 위시해 계림의 절경과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 등 문화 역사 탐방과 관광을 하고 전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熙)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백두산에 오른 회원들.

사회학과

초대회장에 朴晟容동문

사회학과동창회(준비위원장 柳赫仁)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50주년기념 학술세미나와 「동문의 밤」 행사를 갖고 동창회를 발족시켰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주제로 劉載天(서강대교수)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李根茂(아주대교수), 李 哲(前국회의원), 李文熙(한국일보 전무), 鄭鎮一(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동문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가 끝난 후, 회원들은 朴晟容(금호그룹 명예회장)동



문(사진)을 신입회장에 선출했다. 부회장에 柳益衡(법문사 사장), 金彩潤(KBS이사장), 李珠龍(한국전자계산회 회장)동문 등 10명을, 사무국장에는 金載龍(Korea Money 발행인)동문, 총무에는 李鎬烈(오름시스템대표)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전기동문회

유공 동문에 감사패 전달



가족과 함께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는 회원들.

전기동문회(회장 文熙晟)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에서 모교 방문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입회원들을 축하하고, 동창회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2백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제1공학관 견학과 바둑을 두는 시간을 가진 후, 레크레이션 강사의 사회로 게임을 즐겼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모교 발전과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다짐했다.

금속공학과

「금속의 날」행사 가져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張炳洙)는 회원과 가족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모교 노천극장 옆 잔디밭에서 「금속의 날」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서로의 가족들과 격의없이 게임을 즐기고, 마티스 객원교수와 모교에 부임한 신입교수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 등 학창시절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약대11회

李甲烈회장 연임

약대11동기회(회장 李甲烈)는 지난 11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오펜룸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李甲烈회장의 재임을 결정하고 총무에 孔英碩(영신약국)동문을 선출했다.

문리대64회

鄭昭盛회장 선임

문리대 64학번동문회(준비위원장 鄭昭盛)는 최근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은 준비위원회장에 鄭昭盛(단국대교수)동문, 부회장에 辛鉉雄(대통령 비서관)동문을 선임하는 등 임원을 선출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연락처: 709-2446)

상대19기우회

회장에 柳權浩동문

상대19동기회(회장 朴成錫)는 최근 서초동 민속관에서 「일구기우회」 창립모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이날 기우회 회장에 柳權浩(봉신중기 사장)동문을, 간사에 張在己(전방 전무이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사회복지학과

「캠페인200」지원키로

사회복지학과동창회(회장 白秀雄)는 최근 「삼미옥」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회원들은 모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캠페인 200」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각 기수별로 홍보 및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추계 정기총회에서 모교에 보조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화학공학과

모교 컴퓨터실에 기자재 기증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李富燮)는 최근 모교 방문 행사를 가진데 이어 「상의클럽」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공로패 및

상품을 증정하고, 모교에 기술잡지 보조금 2백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2천5백만원 상당의 컴퓨터실 기자재 기증식을 가졌다.



불곡산 등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회원과 가족들.

인천 치대동창회

가을 산행 다녀와

인천支部 齒科大學同窓會(회장 禹光均)는 최근 양주군 주내면에 위치한 불곡산으로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3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등반대회 후 함께 식사를 하고 친목을 돈독히 했다.

불어교육과

학회지 제4집 배포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최근 상록회관에서 이사회를 가졌다.

同會는 금년에 학회지 제4집을 발간, 배포한데 이어 내년에도 소식지와 학회지, 주소록 등을 발간,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테니스, 바둑 등 동호모임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상부상조하는 동창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생물교육과

「50년史」발간

생물교육과동창회(회장 金在浩)는 지난 23일 모교 방문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수업중 사용하던 실험복을 비롯한 수업관련용품으로 전시회를 갖고 「생물교육과 50년史」를 발간했다. (熙)

동정

수상

▲咸仁英(48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석좌초빙교수·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명예석좌교수 = 지난 23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정밀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함.

▲羅瑑俊(57년) 農大卒·모교교수 = 지난 6일 「식물의 마이코플라스마병」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모교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이 수여하는 「제5회 상록 농업생명과학 연구대상」을 받음.

▲李吉女(57년) 醫大卒·의료법인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 = 최근 수해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음.

▲李孝春(58년) 獸醫大卒·前서울시 수의사회 회장·前웅인자연농원 고문 = 지난 10일 호텔신라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4회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날」 행사에서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음.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교수 = 최근 힐튼호텔에서 「도산인상」을 받음.

▲李昌世(61년) 行大院卒·아세아문화사 회장 = 최근 간행물윤리상 출판부문상을 받음.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교수·산업미술연구소장 = 오는 6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시집 「세 번의 鐘」으로 월간 순수문학사 제정 「제4회 순수문학상」 본상을 받음.

▲林魯賢(63년) 農大卒·금산종합고교 교장 = 최근 서울방송 교육대상을 받음.

▲金榮華(63년) 工大卒·대우캐리어 부사장 =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제2회 전기안전촉진대회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음.

▲金大中(63년) 法大卒·조선일보 주필 = 최근 제2회 문경상문화언론부문상을 받음.

▲卞柱仙(64년) 師大卒·한국결스카우트연맹 총재·本會副會長 = 지난 15일 인도 뉴델리의 대통령 궁에서 열린 스카우트 대회의 개회식에서 세계의 난민과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로 인도 정부의 최고 영예의상인 「은코끼리상」을 받음.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교수 = 최근 간행물윤리상 출판부문상을 받음.

▲李啓卓(72년) 行大院卒·경희대교수·한국지역복지정책학회 회장 = 최근 경기도가 매년 향토문화발전과 인문 사회과학 부문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문화상 인문 사회과학 부문 대상」을 받음.

▲朴鍾雄(75년) 法大卒·국회의원 = 최근 시청자 연대회의가 수여하는 제1회 방송 공로상을 받음.

▲金貳煥(75년) 新大院卒·한국PR협회장·아남그룹 홍보담당 전무이사 = 지난 15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광고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PR의 전문화와 과학화 기여와 광고의 자질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음.

▲鄭壯皓(14기 AMP·LG정보통신 사장) = 최근 한국통신학회 선정 「자랑스러운 정보통신인 대상」을 받음.

▲李銀鮮(21기 AMP·한국야쿠르트유업 사장) = 최근 「연세경영자상」을 받음.

▲李 沁(32기 ACAD·주택문화사대표) = 최근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언론부문 「대통령상」을 받음.

▲俞相玉(39기 AMP·코리아나 화장품 사장) = 최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가상」을 받음.

이동·선임

▲朴泰源(49년) 工大卒·前인하대총장 =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에 취임.

▲李柄暉(5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 최근 태평양 원자력협회의 회장에 취임.

▲李相旻(55년) 商大卒·前대구리스회장 = 최근 대구신용보증조합 이사장에 취임.

▲金濤浩(56년) 法大卒·코리아나투어여행사 회장 = 최근 (주)DEPO(Design & Positioning International) 회장에 취임. (주소: 중구 목전동 27-1 도림빌딩 5층, 전화: 285-0251)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교수 = 최근 국제항암연맹(UICC) 암치료 프로그램 위원장에 선출됨.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위원장·本報論說委員 = 최근 중국 연변대학교 객좌교수로 추대됨.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화민국수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주제강연자로 초청됨.

▲李升煥(59년) 法大卒·前한국국제협력단 상임감사 = 최근 한국국제협력단 부총재에 취임.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담배연구회 회장 = 지난 15일 건국대 상허기념관에서 열린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한국유기성폐기물학회 '96 총회에서 감사에 선임됨.

▲崔圭完(61년) 醫大卒·모교교수 = 지난 20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미시간대 한국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추대됨.

▲玄昭煥(61년) 文理大卒·연합

통신 사장·本會副會長 = 최근 국제신문 인 협회(IPI) 종신 회원에 선출됨.

▲愼鏞旭(61년) 法大卒·前서울지방병무청장 = 최근 병무청 차장으로 부임함.

▲李相完(61년) 醫大卒·정형외과의원장 = 최근 국제 재난 및 교통의학회 아시아 지역대표로 선출됨.

▲鄭世煜(62년) 行大院卒·명지대교수 = 최근 한태평양 도시회의 의장에 취임.

▲李 宣(63년) 工大卒·한국해외기술공사 부사장 = 최근 (주)韓石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부회장에 취임.

▲吳京煥(63년) 美大卒·동국대교수 =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초대원장에 취임.

▲金基洙(63년) 法大卒·국회의원 = 최근 신한국당 제1정조위원장에 선임됨.

▲李相河(63년) 法大卒·前프레스센터이사장 = 최근 광주 무등일보 회장에 취임.

▲李純鎬(63년) 醫大卒·인제대교수 = 최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거행된 「대한혈액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선출됨.

▲高學均(64년) 農大卒·모교농업생명과학대 학장 = 최근 제11차 아시아 농과대학협의회 총회에서 2년 임기의 회장에 선출됨.

▲金容鈞(64년) 法大卒·변호사·前체육청 소년부 차관 = 지난 20일 서울 변호사회 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천년 행정개혁 연구추진 중심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朴俊緒(64년) 法大卒·연세대학원장 =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대학원장협의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安繁一(65년) 法大卒·감사원 제2사무차장 = 최근 감사원 제1사무차장으로 승진함.

▲李海淳(66년) 文理大卒·前시애틀총영사 = 최근 대통령 의전수석으로 부임함.

▲全龍洙(66년) 商大卒·인하대부총장 = 최근 한국제무관리학회 회장에 선출됨.

▲張五鉉(67년) 農大卒·교육부고등교육실장 = 최근 연세대신관에서 열린 한국공공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임됨.

▲朴廣作(67년) 商大卒·성균관대교수 = 최근 비교경제학회 회장에 선출됨.

▲趙炳泰(67년) 藥大卒·한림대교수 = 최근 한림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

▲韓大熙(67년) 醫大卒·모교교수 = 최근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

▲朴紀正(68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本報論說委員 = 12월 3일자로 동아일보 동경지사로장으로 부임함.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병원부원장 = 최근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제48차 대한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에 선출됨.

▲崔鴻圭(68년) 教大院卒·중앙대교수 = 지난 16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와 종교학회」 추계 학술연구 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潘基文(70년) 文理大卒·前대통령 의전수석 = 최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부임함.

▲李相哲(71년) 工大卒·한국통신 PCS사업 실무추진위원장 = 최근 한국통신 프리텔 초대회장에 취임.

▲俞炳武(71년) 商大卒·범양상선 전무이사 = 최근 범양상선(주) 대표이사에 취임.

▲金永煥(72년) 商大卒·범양상선 이사 = 최근 범양상선(주) 상무이사로 승진함.

▲南國彦(72년) 商大卒·범양상선 상무이사 = 최근 범양상선(주) 전무이사로 승진함.

▲金錫俊(73년 工大卒·이화여대교수)=최근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장에 취임.

▲洪錫珪(79년 社會大卒·보광전무이사)=최근 휘닉스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에 취임.

▲李仁用(83년 人文大卒·前MBC 위싱턴 특파원)=최근 MBC 보도국 9시 뉴스 앵커로 발탁됨.

▲金沆珠(89년 師大卒·방송인)=지난 21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96년 카드후견인으로 임명됨.

행사·출간

▲白樂院(49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최근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의학교육

학회에 「인당 의학교육 학술상」을 제정하고 일차로 기금 2천만원을 同會 金勇一(61년 醫大卒·모교교수)회장에게 전달함.

▲趙守鎬(47년 美大入·국제서법연맹회장)=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국제 서예전」을 개최함.

▲具平會(51년 文理大卒·한미경제협회의 회장·한국무역협회장·本會副會長)=최근 美 앨라배마주 버밍햄

에서 열린 한·미 동남부 경제협력위원회 제11차 합동회의에 참가함.

▲丁昌燮(51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사간동 「현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짐.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문화재단 이사장·本會副會長)=지난 9일 금호미술관 개관식을 가짐.

▲金瑞鳳(54년 美大卒·前미술협회 이사장)=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립청소년회관에서 한국

풍경화가회전을 갖고 지난 여름 그리스 에게해 스케치여행의 결과를 보여줌.

▲劉鐘海(54년 法大卒·前연세대 행정대학원장)=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1세기 한국행정론」 출판기념식을 가짐.

▲孫一振(51년 法大入·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法大同窓會副會長·本報論說委員)=지난 14일 롯데호텔

36층 회의실에서 열린 靑雲로터리클럽에서 「현대시민 생활에 있어서 신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대교수·한국해결학회 회장)=최근 명지대 세미나실에서 「독일 국제해결연맹총회 참석을 통해 본 20세기말의 해결연구 전망」에 관한 발표를 함.

▲金肅來(57년 法大卒·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지난 26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李仁濟(72년 法大卒)경기도지사를 초청,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개책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元主(57년 法大卒·경북대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오는 6일 서울 국립의료원내 스칸디나비아 클럽 회의실에서 鄭宗澤(58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환경부 장관을 초청, 「OECD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대 총장)=최근 전국 교육대학중 유일하게 인천교대가 교육개혁추진 우수

대학으로 선정,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게 됨.

▲權赫昇(57년 商大卒·한국일보 고문·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지난 13일 경기도 북부 여성회관에서 청

소년 유해간행물 추방을 위한 독서지도 강연회를 가짐.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 총장·동해연구회장)=지난 15일 서울시립대 본관 배봉세미나실

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함.

▲李炳漸(58년 法大卒·한국사료협회장)=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APEC회의기간중 개최

되는 「APEC 비즈니스포럼(ABF)」에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세계신협회의 회장·재무이사·本會副會長)=지난 15일부

터 23일까지 미국 메디슨에서 열린 WOCU(세계신협회의) 집행위원회 및 재무위원회에 참석함.

▲李東熙(59년 文理大卒·前서울산업대학장·오성연구소 이사장)=지난 13일 국방대학원 진급장군과정

에서 「선비정신과 장군의 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함.

▲崔賢(59년 師大卒·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지난 23일과 24일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이색적인 춤판 「무용과 의상의 만남」 공연을 가짐.

▲許洪(61년 商大卒·대동은행장)=지난 22일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지역중소기업인 초청 연찬회」를 개최함.

▲崔明(62년 法大卒·모교교수)=최근 「소설이 아닌 임격정」을 출간함.

▲柳熙永(62년 美大卒·이화여대교수)=오는 7일까지 가인화

랑에서 열리는 「구조전」에 참가함.

▲李泰衡(63년 商大卒·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지난 15일 중앙일보사 대강당에서 공사 창립 29돌 기념

식을 가짐.

▲崔仁永(65년 工大卒·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3회 가스안전축

진대회를 개최함.

▲李廷鎬(65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포스트모던 TS 엘리엇」을 출간함.

▲李鍾國(65년 音大卒·한국교원대학교 교수)=지난 7일 교원대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이종국 교수 제4회 문하생의 밤」 행사를 개최함. 李동문은 93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마련,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金鳳憲(65년 行大院卒·前국민투자신탁 사장)=지난 21일 서초동 이화빌딩 3층에 서일세무회계법인을 설립하고 개업식을 가짐. (전화: 583-4787)

▲奉鍾憲(66년 文理大卒·기상청장)=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수원기상대의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함.

▲柳豪政(67년 法大卒·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지난 16일 한국종합전시장 3층 대서양관에서 「동서양 디자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울 세계우수 산업디자인 박람회」를 개최함.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대표이사·經大院同窓會會長)=최근 카자흐스탄공화국 독립탈디

쿠르칸대학으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학술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철학박사」 학위와 「교수직」을 수여받음.

▲崔宗煥(67년 經大院卒·국제교통시설 대표이사)=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전을 위한 어린이 교통신호등의 횡단보도 신호등 교육기재로 특허를 출원함.

▲李俊(68년 文理大卒·한국통신 사장)=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金雲龍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

직위원장과 대회운영에 관한 통신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약정서 서명식을 가짐.

▲李秀哲(68년 音大卒·세바스티안 실내악단 리더)=지난 9일 호주 시드니 코리언 필하모닉 합창단 초청

으로 Rimsky-Korsakoff의 Hy-



징기스칸, ……., 이 분들 모두가 부동산에 대해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개발건설팅연구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대해 관리를 대행해 드리거나, 팔아 드리고, 좋은 업종들을 유치해 드리고 최적의 개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좋은 경매물건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한국개발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소속 컨설턴트나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비서를 두신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상담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회원접수중)

한국개발건설팅연구원
개발, 경매, 인테리어

서울 416-7077, 418-2928, 416-4544
대구 053-633-0990

mn to the sun 등을 연주하고 귀국.

▲金永吉(68년 經大院卒·경영정보기술연구소 회장)=최근 「경영자의 컴퓨터 마인드」(도서출판사 삶과 꿈)를 출간.

▲趙容格(69년 美大卒·화가)=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시인의 마을」 연작 전시회를 가짐.

▲金聖洙(72년 法大卒·前서울지법 부장판사)=최근 변호사사무실을 개원.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 서보빌딩 401호. 전화: 522-4411)

▲李基秀(72년 法大卒·고려대교수·국가경쟁력연구원장)=지난 21일 하얏트호텔 피어니룸에서 金永燮재경원금융정책실장을 초청, 「OECD가입과 금융정책방안」을 주제로 제2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金基道(72년 新大院卒·前국회의원·국민대강사)=지난 22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홍보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함.

▲白純實(74년 美大卒·화가)=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표화랑」에서 「東茶頌」생명의 변주곡」 전시회를 가짐.

▲金鎮愛(75년 工大卒·건축가·서울포럼대표)=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상하이에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 주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후원으

로 열린 「96 아시아 청년리더포럼」에서 「21세기 아시아를 위한 리더십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함.

▲徐敬浩(75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산해경 연구」를 출간함.

▲黃仁基(75년 美大卒·성균관대교수)=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97년 올해의 작가」에 선정됨.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교수·本報論說委員)=최근 MBC 「안병찬의 일요광장」 진행을 맡음.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20분부터 8시10분까지 50분간.

▲郭順華(76년 美大卒·화가)=최근 현대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함.

▲金明坤(76년 師大卒·극단아리랑 대표)=97년 1월 5일까지 소극장 아리랑에서 공연하는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의 연출을 맡음.

▲洪淳模(76년 美大卒·목포대교수)=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가나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

▲具聖會(78년 美大卒·명지실전교수)=최근 크래프트하우스에서 열린 「기념일을 위한 오브제전」에 참가함.

▲金敏基(78년 美大卒·극단학전 대표)=지난 30일까지 학전그린에서 공연한 「96 지하철 1호선」의 연출을 맡음.

▲李仁庚(81년 美大卒·서양화가)=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이콘에서 초대전을 가짐.

▲林永善(83년 美大卒·조각가)=최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작품전을 가짐.

(정리=崔恩熙기자)



金學俊 인천대학교 총장

“10년내 국내10대 대학에 진입할 터”

—대담:李世震 편집주간

『TEN-TEN PROGRAM 실현으로 인천대학교를 10년내에 국내 10대 대학에 진입시키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립 인천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한 金學俊(65년 文理大卒·69년 大學院卒)동문을 만나보았다.

—고향에서 총장직을 맡게 된 감회는.

『그동안 공직을 많이 맡아 보았으나 이번 만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인천은 제가 초·중·고교를 졸업한 곳이기도 하며 남달리 애정이 깊은 곳이며 2백5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욱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복안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선진·첨단 학문분야의 신진학자들을 빠른 시일내에 영입, 교수진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이미 교육부로부터 국제경영대학원 및 정보통신대학원의 신설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동북아 연구, 태평양 지역 연구분야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최고라는 명성을 얻도록 가칭 「동북아 교류센터」 또는 「아·태 연구원」을 설립, 동북아 국제지역연구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교수진의 40% 정도가 공과대학 교수이고 인천이 공업도시인 관계로 공과대학을 더욱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수원을 포함 인천권



에서 발간되는 신문종류가 11개가 되고 앞으로 민영방송이 설립되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과(부)를 신설, 운영할 생각입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몇몇 의과대학은 광산촌 등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의학공부를 마친 뒤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가는 조건으로 입학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특차전형 실시, 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적분위만이 아니라 졸업후 사회봉사성도 내다보며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펴낸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93년 8월부터 6개월동안 미

국 우드로윌슨 국제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 사회의 엄격한 성희롱 규제를 실감했으며, 성희롱은 엄청난 범죄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성희롱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자료를 수집,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사장으로 있는 아내(姜基遠·64년 法大卒·창조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함께 담아 펴냈습니다』

—22만 동문에게 한 말씀.

『요즘은 많은 분야,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은 물론 그 외 지역의 동문들도 인천대학교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安興燮기자)

을 한해를 돌아보며

“동창회의 질적 성숙과 내실화를 기할 때입니다”

—鄭宗澤상임부회장(본보 편집인)



올해는 서울대인은 물론, 온 국민이 모교 개교 50주년을 더불어 기념하고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반세기를 의미있게 설계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우리 동문사회에 폭넓게 확산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에 애쓰신 鮮于仲皓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물심양면에 걸쳐 성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타 대학동창회에 비해 연륜도 일천하고 재정기반도 미비하긴 하나, 어느 때보다 동문간의 친목과 결속을 도모하고, 모교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6일 해외동문 및 모교 교수들과 청와대 예방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총회와 서울대가족 등산대회는 뜨거운 열기와 관심속에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문들이 한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SNU Phil음악회, 동문 미술전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무대에 올린 연극제는 메말라 가는 감성의 세계에 한 줄기 빛으로, 또 시원한 빗줄기같은 청량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캠페인 200」에 참여 유도

모교지원 역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 200」에 모교 교직원과 함께 우리 동창회가 솔선 참여함으로써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애정을 유발하는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충하면서, 연구비가 부족한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에 대한 연구저술비 지급도 계속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특지장학금과 연구저술비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洪性大상신학원 이사장, 李吉女의료법인 길병원 이사장, 金讚淑청아치과병원장, 金柱津아남그룹 회장께서 흔쾌히 기금을 출연해



지난 10월 15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린 모교 개교50주년 기념식

줌으로써, 「재단법인 관악회」의 모교 지원사업외에 4개의 개별 장학회가 운영되는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악, 연건, 수원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6개의 기숙사에 헬스센터를 신설하고 학습과 문화공간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자재공급 및 전화기 증설을 통해 5천여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 역시 특기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편물량 1백만통 넘어

특히 올 15대 총선에서 1백67명의 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고, 지난 10월에는 제15대 동문 국회의원 모임인 「관악회」가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이 나라 국정에 많은 동문들이 소중한 책무를 맡게된 것 역시 우리 동창회의 패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해외 각지의 동문대표들을 초청, 모교를 방문하고, 국내외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시간들은 우리 동창회가 아니고는 갖지 못할 뿌듯한 만남의 장이었습니.

이러한 일들을 하다보니 올 한해 총

동창회가 발송한 우편물량은 1백만통을 넘어, 가히 「동창회는 Communication」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동창회는 모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고, 질적 성숙과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해봅니다.

이제 개교 50주년의 해를 마감하면서 모교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겨레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데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손길과 마음 씀씀이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씨줄과 날줄이 잘 교직되어야만 튼튼한 그물을 만들 수 있듯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유기적 결속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교의 창학이념이자 정신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이 더욱 발양될 수 있도록 총동창회는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 동문 여러분과 모교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22만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가내 행복과 평안을 함께 기원합니다.

대학 입시철이면 서울대에 몇 명이 합격했느냐에 따라 고등학교의 등급과 평판이 달라지고, 취직 시험철이면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에 따라 직장의 인기도가 달라진다.

정부 각료나 고위직 인사가 발표되면 서울대 출신이 많은 것을 당연시하고 소수의 타대학 출신이 오히려 희소가치를 발휘한다. 각종 고시를 비롯한 어려운 시험에서 서울대 출신은 항상 다수를 차지한다.

타대학 출신의 희소가치 생겨

사회 각 분야의 높은 곳, 뛰어난 일마다 서울대 출신이 그득그득하고 나라의 각종 지도 계층이 서울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시피한다. 이런 현상을 보는 보통 사람들은 말했다.『서울대 판이로군!』

서울대 사람들은 이를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느리나무광장



李年憲
충주MBC사장

「서울대 판이로군!」

양보다 질을 생각할 때다. 인격·양식의 수준이 지식·지능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사회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른 사

회 지도급 인사에 서울대 출신은 절대로 없다는 전통을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대의 지성은 하나의 국가 사회적 신용도로써 인정받아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활동하면서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인격과 양식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야한다.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기 싫듯이 서울대라는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인격이 지식수준과 비례해야

개교 50년 이래 나라의 동량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대라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지만, 앞으로 50년은 「가장 질 높은 인간」을 만드는 학교, 한국 사회의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서울대 출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서울대 판이면 완전히 믿어도 돼!』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함

세계 제일을 겨냥하자

李容璦(64년 工大卒) 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장



「축 000군, 서울대 합격!」. 지난 늦겨울, 지방의 어느 마을을 지나다 본 현수막에 쓰여진 문구다. 마치 월드컵 2002년 개최권 획득을 축하하는 것만큼이나 컸다. 그만큼 그 지방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나오는 것은 그 지방의 경사이고 자랑인 것이다.

왜 특별 대접 받는지

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 관악인들이 국민들에게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받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부담을 크게 느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국내에 수없이 많은 대학은 물론 여러 국립대학 중에서도 유독 서울대학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대접은 특별한 것이다.

한국통신에서도 지난 5년에 걸쳐 1백8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석좌교수기금, 교육 기자재 확보, 연구동 건설 등의 목적으로 출연해왔다. 9월초에 공학관 1호동 준공식에 참석해 신축된 현대식 건물과 시설을 보니 신공덕 캠퍼스에서 학부를 마친 본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환경이었고 외국의 어느 대학과도 견줄만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한다. 국민들은 서울대학이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명문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대학이 되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문 대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만드는 것은 역시 학생, 교수, 동문들을 포함한 사람이고 시설은 단지 이들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에 불과하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겨루기위해 우리 서울대학의 교수나 학생도 국내의 제일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세계의 제일을 겨냥해야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의 학생과 교수답게 그 행동과 사

고의 형태가 달라야 하고 관심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 시대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하고 무리를 선도하는 사명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오를 가져야한다. 국내 일반 타 대학의 교수나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속성만 가져서는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평범한 사고는 안된다

또한 동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고 안팎으로 모범이 되는 동문이 돼야 한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모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물

심으로 돕는 동문들을 갖고 있다. 우리가 모교에 대해 보여주는 인식함과 무관심으로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명문다운 동문이 필요

모교의 명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후광을 입었다기보다 거꾸로 자신과 같이 우수한 동문을 둔 모교가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동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 우리 동창회가 명문대 동창회의 대열에 낄 날은 멀었다고 생각한다. 명문 대학다운 동문들이 없이는 명문 대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9개 道중 올해 민선자치 최우수단체로 선정

「NEW HOPE 21」수립, 중부권 핵심리더 면모 갖춰

⑦ 충남도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沈大平충남도지사

沈大平(66년 商大卒)충남도지사는 도정의 기본틀을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에 두고 도민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날 관선지사를 역임한 후, 총리실 행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 등을 거친 沈지사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출범 초기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대홍수 피해, 무장간첩 출현 등 여러가지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경향신문사와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충남이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교 행정대학원이 평가한 결과에서도 9개 道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충남 민선자치도정 1년은 2백만 도민과 더불어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정의 기본틀을 정립한 한해였으며 충

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민이 직접 서비스 평가해

충남은 도지사실을 개방하고 주민전용 팩스를 설치해 불편부당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청 현관 입구에 1백20평 규모의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도민봉사실, 민원접수 상담창구 등 민원관련부서를 집중배치,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민원인 후견인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민원실명제, 고정민원 상담처리제, 민원인에 의한 친절도 평가제 등을 도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한편 충남은 법률, 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 및 전문가 50여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민원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단체가 합동이동봉사실을 운영하고 우편제도를 실시해 도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펼쳐

충남은 2천년대 중부권의 핵심리더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고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충남 NEW HOPE 21」이라는 미래의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을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고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도내 북부지역은 활발한 공단건설과 함께 수도권 기업 대거 유입으로 신산업지대로 부상함에 따라 아산국가공단, 석문국가공단, 8개 지방공단 및 한보철강 등 대규모 공업단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沈지사가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계획해 3천4백여억원을 투입, 백제 큰 길 조성 등 기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남은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 중부권 농수축산물 유통기지 건설, 아산기능대학 설립, 아산테크노 콤플렉스 지방공단 조성, 청양개발촉진지구 지정, 대산지방해운항만청 개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지했다.

對중국 무역진출 눈앞에

충남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대외 진출기반을 조성했다. 그 하나로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하베이성, 러시아 아무르주, 일본 구마모토현 등 3개국 자치단체 순방을 통해 자치단체간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농수축산물 종합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충남 농산물 백화점을 개장해 수도권 판매거점 확보 및 인근 대도시로 직판장을 연결,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제를 도입, 도지사가 대표적 농특산물을 공식 추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 및 판매촉진을 기하고 있으며, 서해안시대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對중국 무역전진기지를 중국현지에 설립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특별지원조례 제정

충남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의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실천했다. 또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장애종류별 지원시책 등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시책, 장애인 재활시설·편의시설 등 복지시설 확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확대와 지위향상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와 여성정책심의실을 설치했다.

절의·충효의 고장으로 유명

충남은 절의와 충효에 바탕을 둔 충남인의 정신을 21세기 정신문화 창조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스승 존경운동, 노인 공경운동, 고향 사랑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沈지사가 최근 성균관이 제정한 「제2회 오늘의 齊家賞」 시상식에서 효도상을 수상한 것처럼 충남은 충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충남에는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금융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교육계에 李昌甲(50년 工大卒)건양대 총장, 朴景源(52년 農大卒)대전시교육감, 崔順達(54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李載元(56년 工大卒)충남대학교 수 등이 있으며, 의료계에는 宋英燮(48년 醫大卒)삼성의원장, 宣鎬榮(48년 醫大卒)신병원이사장, 南勇旭(55년 醫大卒)남육치과의원장, 金英鎬(56년 齒大卒)금호치과의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金仁中(60년 法大卒)변호사, 李萬植(57년 商大卒)중부리스(주)사장, 池治本(60년 商大卒)충청은행 상무이사, 金晶洙(60년 商大卒)경성운수 사장, 金東鶴(57년 文理大卒)한국자원연구소장, 鄭明世(65년 文理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소장, 金文鉉(69년 工大卒)시스템공학연구소장 등이 지역발전과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도청 동문 현황〉

李愚勇	충남도교육위원	55년 農大卒
崔重默	충남도의회의원	61년 農大卒

(志)



공주 소재 「새싹 어린이집」을 방문한 沈지사.

모교소식

金完鎭교수 등 22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 명예교수선정위원회(위원장 崔松和부총장)는 지난 10월 14일자로 22명의 명예교수를 새로 추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의 명예교수는 3백9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完鎭(국문학), 趙炳泰(영문학), 崔完植(중문학), 呂井東(외

교학), 金宗炫(경제학), 金彩潤(사회학), 河斗鳳(분자생물학), 金鳳翔(건축학), 王仁權(농경제학), 金泰(서양화), 徐元宇(공법학), 朴秉濠(사법학), 金恩典(국어교육), 李季順(영어교육), 趙潤相(제약학), 李王圭(약학), 金惠靈(성악), 金鍾煥(의학), 明好鎭(의학), 李漢九(의학), 張友鉉(의학), 李英煥(보건학)교수.

공과대학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지난 11월 4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96년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학술부문에 「이동공간 제어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 유용성을 증명하는 등 우수한 학술연구 업적을 남긴 權旭鉉(전

기공학부)교수가 수상했으며, 기술부문에는 단결정 강유전체 박막을 형성시켜 「선택적 핵형성 및 성장」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朱承基(재료공학부)교수가 수상했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교육 및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교수를 학술, 기술, 교육 등 3개 분야에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공대 15회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미술대학

동경예대 판화교류전

미술대학(학장 尹明老)은 동경예술대학과 대학원생 판화교류전을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미술대학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모교에서 18점, 동경예대에서 2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權旭鉉교수



朱承基교수

환경대학원장에 楊秉彝교수

지난 11월 5일자로 환경대학원장에 楊秉彝교수(사진)가 선출됐다.

楊교수는 46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68년 농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1년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



연구소장, 조경학과장,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부원장에는 李道元(78년 自然大卒)교수가 선임됐다.

모교병원, 화상시스템 가동 치매환자 원격진료센터 첫선

모교 병원(원장 李迎雨)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인천영락치매전문요양원, 서울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등록정보센터 등과 병원내 치매센터를 통신망을 통해 연결, 멀리 떨어져 있는 치매환자를 화면을 보면서 진료하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갔

다. 이번 첫선을 보인 원격치매센터는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국가초고속통신망구축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총 6억4천만원을 들여 문을 열었다.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동안 원격진료비는 무료이다. (연락처: 760-3250)

아시아자동차 金榮石사장 하이브리드 버스 1대 기증

아시아자동차(주)(사장 金榮石·66년 商大卒)는 최근 모교에 45인승 하이브리드(복합동력) 버스 1대(9천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 버스는 모교 공학연구소와 아시아자동차 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낮은 속도에서는 디젤 엔진이, 높은 속도에서는 전기 모터가 동력을 보조하게 된다.

모교는 이 버스를 교내 순환

버스로 운용할 계획이다.

제어계측 신기술 SME최우수상 수상

제어계측 신기술연구센터(소장 權旭鉉)는 지난 11일 美생산공학회(SME)가 매년 전세계 대학 연구기관중 1개 기관을 선정, 수여하는 96년도 생산공학분야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최우수대학상(SME UNIVERSITY LEAD AWARD)을 수상했

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막된 생산기술 회의 및 전시회에 앞서 美생산공학회가 수여한 이 상은 85년 조지아 공대의 첫 수상에 이어 13번째로 한국 생산공학분야의 연구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개가로 평가된다.

박물관

멕시코 현대미술전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지난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현대미술전시실에서 Ernesto Zedillo 멕시코 대통령 방한 기념으로 멕시코 현대미술품(카이론 콜렉션)과 「生의 投影」이라는 주제에 멕시코 서부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선사유물을 중심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멕시코 서부의 선사문화는 97년 2월 15일까지 박물관 고고역사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음악대학

관현악연주회 열어

음악대학(학장 李成均)은 지난 2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관현악연주회를 개최했다.

林憲政교수의 지휘로 음대교향악단 1백20명과 합창단이 출연한 이날 공연에는 말리의 교향곡 2번 「부활」이 선보였다.

40대 총학생회장

李碩炯군 선출

지난 22일 열린 제40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행복할 권리를 찾아」 「Volunteer, 먼저 시작한다」는 구호로 유세를 펼친 고고미술학과 4학년 李碩炯군이 39.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雙)



11월호를 읽고

노령화시대에 절맞는 편집 기대



요즘 각 분야에서 노령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이 스트레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또한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잠재 의식에 입력된 프로그램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의 프로그램도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우리 동창회보에 이런 연령층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줄 기획이 있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金一奉(61년 齒大卒)한국치과교정연구회 이사장

시사성 있는 만화 게재해주길



두가지 조그마한 욕심을 부린다면 첫째, 대학교육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사회문제를 함축한 만화(일간지에 게재되는 것과 같은)도 게재한다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초대석」란을 만들어 단과대학별로 돌아가면서 그 대학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동창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저명한 인사 위주의 인물만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방법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창회는 특정인물 몇몇보다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끈끈한 정의를 물고 커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학교 대학원장



적당히 배가 고파야

지금부터 30여년전, 내가 십대 때에는 배가 불러야만 건강하고 힘이 난다면서 어머니께서 고기 반찬에 매우 잘 먹여주신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 되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두가지 음식이 있다.

버리는 음식 늘어나

하나, 뒷마당에 깊숙이 묻어 놓은 김치독에서 어머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김치를 들고 들어오셔서, 손으로 쪽쪽 찢어 밥에 얹어주시면 다른 반찬은 필요없었다. 또 하나는,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발효시킨 식혜를 뒷마당에 두면, 얼음이 사각사각 씹히는 식혜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맛있고 귀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항상 배가 불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음식공해가 시작되었다. 먹을 것이 넘쳐흐르면서 버리는 것도 많아지고, 또한 뱃속에 버리는 것(?)도 많아졌다. 외국의 패스트푸드점이 속속 들어오면서 손쉽게 먹게 되고 인스턴트가 사정없이 만들어지면서, 뒷마당의 김치독은 냉장고 안의 김치통으로 바뀌고, 식혜는 캔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때가 되어 이것 저것 먹게 되니 몸에 쌓이는 게 병, 그것도 성인병에 우리들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적당히 배가 고파야 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기아현상이 늘어나고 앞으로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시대가 온다 하니, 우리는 미래의 배고픔에 대비해서라도 식사량과 간식량을 조절



金明惠(77년 藥大卒)
소정약국

해야 한다. 자신과의 배부름과 싸워야 한다.

배부름과의 전쟁

적당히 배가 고파야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개교 50주년을 기아대비 원년으로 삼아 적어도 S대 졸업생들만이라도, 밥은 세 술갈 이상, 국물은 반 이상, 기타 반찬류도 반 이상 줄여 먹는 것을 실천에 옮기면 어떨까 한다. 식사량과 간식량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남편(白萬基·76년 工大卒)도 긴 세월이 지나서야 실천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과연 항상 배가 고플까?

유부녀는 절대 안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속에 진행되었던 드라마 「애인」이 최근 막을 내렸다. 30대의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 서로 애절한 감정을 갖게 되지만 결국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다소 상투적인 내용으로 결말을 맺은 이 작품은 방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장안의 얘기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제의 초점이 유부녀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냐 하는데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유부남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유부남은 외도를 해도 괜찮지만 유부녀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인 때문일까?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여성만의 몫은 아닐텐데도 말이다.

가정, 여성만의 몫인가

인류의 가족 제도는 모계사회를 거쳐 부계사회로, 일부다처제에서 일부일처제로 변화되어 왔다. 가족 제도가 기반이 되는 인간 사회는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관습, 도덕, 법 등의 규범

으로 인간의 자유를 적절히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다. 인간은 그 내면에 복잡한 자기만의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무한한 자유 의지와 그의 이면인 고독, 그리고 본능에 대한 끝없는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욕구는 사회의 규범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밖으로 표출된다.

책임·의무로 지켜가야

인간의 본능과 자유 의지에 비추어 본다면 일부일처제의 확실성은 너무 가혹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인간은 언제나 홀로 선 존재이기에 사회제도와 규범에 맞추어 결혼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있게 마련이다. 만약, 서로에게서 위안 받을 수 있는 규범적인 한계가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체념보다는 적당한 트락을 사이에 두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도 삶을 살찌우는 방법일 수도 있다.

가정은 소중하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이고 지주이기에 여기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가꾸고 지켜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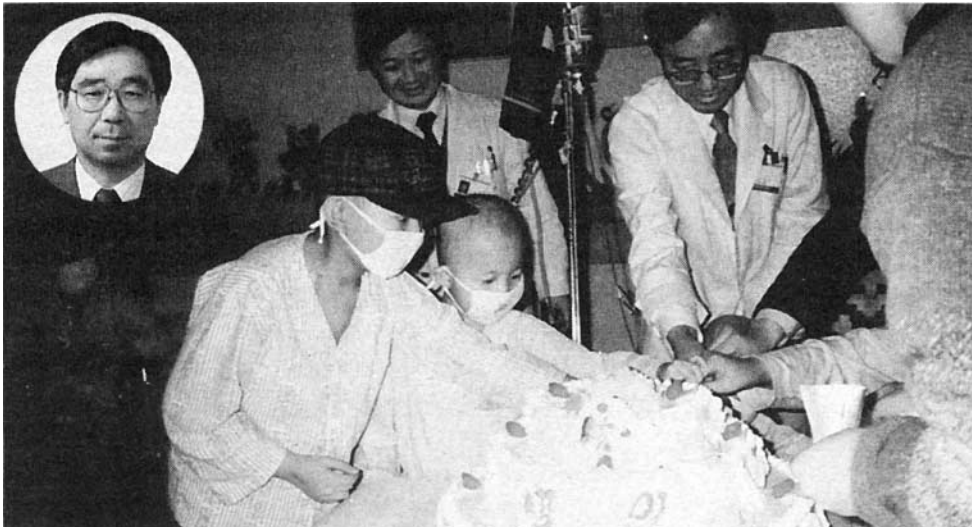


金成姬(85년 看護大卒)
덕산상사 실장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시대적인 요구이고 보면, 가정을 지키는 책임 또한 여성만의 몫이었던 시기는 지나갔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결혼한 여자가 남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의 방종에서 오는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라. 자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그의 남용에서 오는 타락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다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낙엽이 지는 계절, 여성에게만 주어진 많은 굴레의 편린이 아직도 이 사회에 많다는 것을 「애인 신드롬」에서 발견하고는 이내 씩씩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매월 생일을 맞은 환아들을 초청, 작은 잔치를 마련한다.(왼내李회장)



이런일합니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李純炯회장

다양한 행사로 환아에게 새 생명 심어

백혈병 어린이가 환자와 가족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6년을 함께 해온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李純炯(62년 醫大卒·모교의대학장)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모두 安孝燮(71년 醫大卒·모교교수)교문, 홍순각(환아부모)사무국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1천명이 넘는 회원들, 그리고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활동은.

『집안에 어린이 환자, 특히 백혈병 환자가 생기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오랜 기간(최소한 2, 3년) 환아에 매달리다보면 생업은 물론 가정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기도 하지요. 우선 올바른 가정간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약 복용, 영양 등의 교육과 소아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모들끼리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외에도 매년 「완치기원 연날리기 대회」, 「푸른 우리 마을 여름가족캠프」 등을 개최하고 연말에는 완치된 어린이를 초청해 「백혈병 어린이 잔치」를 열어 금메달 증정식을 갖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격주로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과 환아를 직접 맺어주는 白助운동, 헌혈증서 기

증운동, 새 생명통장 나누어주기 운동도 같이 전개하고 있지요. 일전에 TV로 방영됐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백원짜리 동전 1백만개 모이기 운동」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천에 환아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생소한 집」을 마련했고 지방 거주 환아의 경우 장기 치료를 할 때 겪는 숙박의 어려움을 덜고자 제일생명 후원으로 「제일생명의 집」을 열었습니다. 이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미술, 컴퓨터, 영어회화 교육 등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지요. 특히 「OB백혈병 어린이 야구교실」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가입 방법과 참여하고 계신 동문은.

『후원회로 전화(766-7671~4)를 주시면 회보와 회비납부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동문으로는 모교의 洪彰義(47년 醫大卒), 申熙泳(80년 醫大卒)교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법인체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환아들을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부모들에게 지침서가 될 안내책자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志)



유능한 교수 낭비해서야

언젠가 당시 요직에 있었던 모씨가 망발을 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다. 유능한 교수는 대학을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학에 남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좀 경솔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수긍이 갈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한다. 임신출세와 치부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바이다.



李庸周 명예교수

인재관리의 지혜 필요

서울대학교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들을 대학 아닌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진정 유능한 사람이 대학에서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일은 당시자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다. 특히 자리를 옮긴 사람이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설사 특정한 자리에 옮겨 앉아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연구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그런 교수가 대학을 떠나거나 떠나게 하는 것은 대학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아깝게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대학에 남겨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막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얻은 젊은 교수가 대학 내의 일이라고는 하나, 보직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와는 거리가 먼, 누가 해도 다를 것이 없는 일을 맡기 위해 학문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다. 돌아나는 싹을 뽑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의 기운 빼지 말자

교수와 연구 능력이 뛰어난 대학 교수로 하여금 대학을 떠나게 하는 일은 대학의 수많은 낭비 중의 하나다.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은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출된다. 대학의 낭비는 인류 복지를 위한 원동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옛 현인은 학문하는 것을 逆水行船에 비유하였다. 잠시라도 손을 놓거나 소홀히 하면 배도 학문도 후퇴하는 것은 뻔한 이치다. 대학의 기운을 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문화
단신

新刊

■그래도 한국에는 비전이 있다

— 金璟東 著

최근 모교 사회학과 교수인 金璟東(59년 文理大卒)동문이 학자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성찰과 비판 등을 담은 논설과 강연 원고를 한데 모아 사회평론집을 펴냈다.

이 책에서 金동문은 노사문제,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간교육 등을 다루었으며 선진 문화 사회를 지향한 국민운동도 제안했다. <집문당刊·값10,000원>

■氣를 모아 다시 한번

— 金璟東 著

올해로 회갑이 된 金璟東동문은 또 사회평론집과 함께 펴낸 칼럼집에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과 병폐, 약점을 살펴보고 자정능력을 키우고 氣를 모아 재기하자는 조용한 외침을 담았다. <집문당刊·값8,000원>

■시대를 움직인 인물

— 李洋雨 著

국제펜클럽 회원인 李洋雨(최고산업전략과정 3기)경인매일신문 논설고문이 이 책속에서 天祥炳, 朴寅煥, 洪蘭坡, 金洪燮 등의 진실된 삶을 소개함으로써, 가치관이 상실되고 황금과 물질이 팽배하고 개인의 이득에만 혈안이 된 이 시대에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도서출판 증명刊·값6,000원>



公演

■金昌洙의 소리그리기

— 12월18일 예술의 전당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음악 연주자인 金昌洙(85년 音大卒)동문이 인도의 대표적인 타악기 Tabla를 통해 인도 리듬의 절묘하고도 환상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정리=安興燮기자>



裴永姬 서울재즈아카데미 이사장

“대중음악연구소도 만들고 싶어요”



최근 「서울재즈아카데미」를 개원, 대중음악의 든든한 후원자겸 대변인으로 멋진 60대를 보내고 있는 裴永姬(53년 文理大入)동문을 만나 보았다.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몇 차례 쓰러져 고생했죠. 그러다가 95년, 젊었을 때 익힌 피아노 실력만 믿고 「꿈」이라는 타이틀의 음반을 내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몰입하는 기쁨도 느끼게 됐어요』

클래식 음악가들은 사회적 지원과 보호속에 교육의 혜택도 받지만, 대중음악가들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은 커녕 연습실도 없이 잡초처럼 자라야 하는 현실을 裴동문이 알게 된 것이 지금의 서울재즈아카데미를 있게 했다.

『개원한지 6개월 남짓 됐는데 반응이 놀라와요. 대중

음악의 체계적인 교육기관 부재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탓이죠. 매월 음악회를 갖고, 수강생들의 작곡과 편곡 작품도 받아보는데 정말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3개과 5백여명의 수강생들이 70여명의 강사진과 함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강의는 음악기초 이론에서부터 매니지먼트에 이르는 활동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국의 대중음악교육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 그러나 한국이 세계 4위의 음반시장인 만큼 그 미래는 밝다. 그만큼 할 일도 많다는 얘기다.

『1기 졸업생을 곧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이 대중음악가로 활동할 때 재즈아카데미 출신들은 역시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곳의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죠. 우리 사회도 더이상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대중음악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업인이나 사회지도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裴동문은 어느새 대중음악 대변인을 자처하게 됐다.

裴동문은 유학중 남편 崔萬立(54년 法大入·대한마이크로전자 대표)동문과 결혼해 1남1녀의 자녀를 두고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70년부터 주한미군과의 결혼을 앞둔 한국여성을 위한 「브라이드 스쿨」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제전문직 여성기구인 「ZONTA」 서울클럽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엘리트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로터리클럽을 창설해 회장직을 맡는 등 여성 인권 운동에도 정열을 쏟아왔다.

裴동문은 대중음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느껴 대중음악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음악연구소」를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우리의 대중음악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는 환히 웃는 裴동문의 미소에서 대중음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熙)

지각 동창생의 녀두리

宋秉徽(47년 文理大入)동문



몇달 전에 일간신문을 보고 남산에서 一石 李熙昇선생님의 비석 제막식이 거행됐음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아서 참석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리대 국문과 1학년에 입학할 때는 46년 국대안문제로 시끄럽던 때입니다. 좌익계열에서는 국대안은 미국 식민지정책이라고 선동했습니다. 돌이켜보니 李熙昇 주임교수님(당시는 과장 선생님이라고 말했음)의 학점이 매우 짚고 李秉憲선생님의 국사시간에 「나의 삶에 의하면」과 가람 李秉岐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음담패설」, 또 柳應浩선생님의 박식한 언어학개론, 方鍾鉉선생님의 구수한 강의, 이외에도 趙潤濟선생님, 安浩相선생님, 李崇寧선생님의 활기찬 강의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학생처장이 미군장교복을 입고 대학 본관 2층에서 유창한 우리말로 학생 하나하나를 개별 면담심

사해서 좌익학생을 가려낸 일과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잊어버린 같은 과 여학생과 단둘이서 넓은 운동장에 쫓고리고 앉아 네잎 클로버를 찾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50년만에 찾은 동창회

48년 2학년을 마치고 사정이 있어 중퇴를 했는데 그 후, 고회가 된 금년까지 근 50년간 모교와는 아무 연락없이 지내왔습니다.

몇달 전에 우리 일가되는 延安 宋씨 대종회 부회장겸 총무이사이신 宋鍾益(59년 農大卒)씨가 본인에게 총동창회 명부에 준회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 그 길로 우리 사위집에 가서 총동창회 명부를 보니 국문과 47년 준회원임이 확인됐습니다. 모교에서는 나를 잊지 않고 반세기나 되도록 불초 이 사람을 회원 대접을 해주었는데 나는 모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도 되고 미안한 마음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국에 동창회 전화번호를 물어 총동창회가 마포 도화동에 있음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아담한 건물 3층에 가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는 과거 근 30년간 금융기관에 재직했습니다만 재직시는 매일 조석으로 같이 근무하던 入行 동기생을 제일 가까운 친구로 알았으나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그 직장 친구가 제일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뿌리로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 형제 자매와 일가친척이요, 다음은 고향 친구요, 종교교 친구, 대학 친구의 순서가 되며 제일 끝이 직장 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의 경쟁이 망국행위(?)

요즘 가장 유식한 척하며 누구보다 애국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감정

문제를 아전인수식으로 떠들며 심지어는 망국론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고향사람끼리 단결하고 노력해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어찌 망국행위입니까? 오히려 애향심의 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간 지역감정 때문에 손해난 일보다 오히려 상호견제하고 경쟁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 출신의 애교심은 앞서 말한 애향심보다 고차원이요, 애국심과도 상통한다고 봅니다. 늙고 기력없는 사람의 녀두리가 될 지 모르나 우리 서울대인은 숫자상으로나 내실적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상아탑 출신이라고 자부합니다.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명예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창회의 활기를 찾는데 합심할 것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8년만에 모교를 다녀와서

玉唯鎮(68년 工大卒)변호사

『팔자 좋으십니다! 개교 기념일에 모교를 방문할 정도로 여유 있으시니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정말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개교 50주년, 졸업한지 28년만이다. 비록 내가 다니던 그때 공릉동의 교정은 아니었지만 수려한 관악산 기슭에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교정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함께 방문한 해외 동문들 사이에서는 『하! 이런 곳에서 다시한번 학교 다니고 싶네. 우리 때하고는 비교가 안되는구먼』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28년 전, 정 많은 학과 그 친구가 의젓한 연구실장이 되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얼굴에 주름이 좀 생겼고, 몸이 조금 불었어도 아직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적당히 나이 먹어 있는 모습이 정겨웠다.

박물관에 전시된 푸른색 교복과 교모, 배지, 학생증 등을 볼 땐 타임 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였다. 별다른 웃이 없던 그 시절, 멧넌줄 모르는 내겐 교복은 더할 나위없이 편리하고도 좋은 웃이였다. 머리 손질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뽀뽀 모자, 멀리서

봐도 자랑스런 서울대생임을 알게 해주었던 그 푸른색 교복. 미팅을 갈 때나, 책방을 가거나, 술집을 가거나, 사시사철 입어 닳고 닳아 구멍이 뚫리도록 입고 다녔던 간편하고도 멋있었던 그 교복...

벌써 나의 재학시절로부터 사반세기가 더 흘렀다. 교정에는 내가 기억하는 얼굴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교수님이 항상 단아한 모습으로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교단에 계신 것을 볼 땐 그동안 세월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지 않았나 하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 모두 모두 얼싸안고 싶은 반가운 모습들이었다.

개교 기념식에서 가슴 뜨거운 일이 있었다. 전물 동문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다. 6.25 때 출전했다 돌아오지 못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문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을 통해서나마 명예 졸업장을 전달했다. 돌아가신 이들에게 졸업장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리라는 모교가 그들을 기억하고, 동문들이 기억하고, 민족이 기억함에 의미를 두고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 50년간 우리 대학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

대 교수들의 안내로 둘러본 연구실이나 공학관 등은 어느 나라의 대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좋았다. 물론 더 많은 연구실, 도서관이 필요하고, 교수요원을 채워야 할 것이 숙제로 남아 있지만 모교의 발전을 보는 것 또한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규장각의 볼지 못한 과제

해외 동문들에게 둘러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아직 완공되지 못한 「규장각」을 둘러보고 나오는 일행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무거웠던 것 또한 자

울 수 없는 기억이다. 예산 부족으로 조선시대를 비롯한 역사속의 책 2, 30만 권이 아직 누구의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

『7, 8명의 연구원으로서 태부족입니다. 아직 일제시대 문서들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묶어 놓은 그대로 끈도 못 풀어본 문치 그대로입니다. 다른 조선시대 책이나 역사서들도 내용별 분류나 연구는 커녕 책에 번호 붙이는 것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안타까워하던 관계자의 얘기는 우리 서울대학만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부와 대학과 또 다른 모든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해 해내야 할 과제였다.

다른 여러 바쁜 행사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해외 동문들을 초청해 3박 4일간 융숭한 대접을 해주신 학교 관계자 모든 분과 총동창회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21세기에 「겨레와 함께 미래로!」 향하는 모교에 무한한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해외동문 방문단과 함께 규장각을 돌아보고.(맨오른쪽 필자)

“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 10월 17일 ~ 11월 18일 • 一般: 10월 13일 ~ 11월 15일〉

상임이사

▲李誠載 음악대학동창회장=20만원

이사

◇家政大學

▲유영주⑥경희대학교수

◇看護大學

▲김매자④서울대학교수

◇經營大學

▲강능원⑦크레디리요네부장

▲이종욱⑦외국어대학교수

▲정찬후⑦공인회계사

◇工科大學

▲구재완⑤선경건설상임고문

▲권중두⑤前신동아건설대표

▲기우봉⑤현대ENG상임고문

▲김규오④유종ENG대표

▲김석현⑤우진산전부사장

▲김용희⑦대진과워시스템

▲김정순⑦前신한기업이사

▲김정욱⑥前고속철도공단

▲김호근④남서울산업대총장

▲노병완⑤한국인삼진흥공사

▲문성득⑤부산공업대학교수

▲박만석⑥前서울시하수국장

▲박용승⑤수공감리공단대표

▲박재면⑥현대ENG회장

▲박찬규⑤현대건설부사장

▲박태원⑦아주대학교수

▲배영호⑦(주)코오롱전무

▲백이호⑦서현건설대표이사

▲송영준④동화어드밴티스트

▲송진환④동남석유공업고문

▲안병준⑦삼성하우징시스템

▲안수길⑦前서울대학교수

▲유관희⑥태광지질부사장

▲윤봉태⑦호남정유상무

▲윤한욱⑤대성탄좌부사장

▲이계수⑦동화산업부사장

▲이재규⑤라우건축사무소장

▲이재명⑦前건설기술연구원

▲이정일⑤국제전열부사장

▲이준식⑥KIST교수

▲이행부⑤포스코홀스대표

▲이현구④대우건설부사장

▲장승필⑤서울대학교수

▲장평훈⑦KIST교수

▲조복제④동성교역대표이사

▲조사홍⑥백화양조대표이사

▲조정주⑤LG정보통신대표

▲조형제⑤한화미상사회장

▲최민호④홍익대학교수

▲최원갑⑥최신물산회장

▲최창환④창성금속대표이사

▲황선근⑦인하대학교무처장

◇農科大學

▲권오준⑥종합기술개발공사

▲심재철③니썬맨 서울지점

▲이상규⑤중앙토건부사장

▲최찬식⑥국토정책연구원

◇文理科大學

▲강경식⑥서울버스터미널

▲고영재⑦한겨레21편집장

▲권영찬⑥前건국대총장

▲김의경⑥국제극예술협회

▲김희상⑦육본인사참모부

▲민병천⑥동국대명예교수

▲박기덕⑦세종연구소위원

▲박종대⑦서강대학교수

▲변 형⑤한국투자신탁사장

▲성병욱⑥중앙일보상무이사

▲손영호⑤우방건설대표이사

▲오희필⑤중도발전연구協

▲유혁인⑦종합유선방송委

▲이상진⑦경남기업회장

▲이영원③세방전지전무이사

▲이재명⑦국회의원

▲이재복⑥동양시멘트사장

▲인태오⑥KBS경영본부장

▲정종욱⑤駐중국대사

▲정창기④교통관광TV

▲정한택④호서대학교수

▲정효현⑦진도종합건설전무

▲최서영⑤노원유선방송국

▲최성규④진주무역대표이사

◇美術大學

▲민경갑⑦유산화실

▲서세옥⑥서울대명예교수

▲이종상③서울대학교수

▲조성애⑥판화작가

▲진진숙⑥한양대학교수

◇法科大學

▲김기택⑦신일상역대표이사

▲김남성⑥공영개발스포츠

▲김동훈⑥서울시청소사업부

▲김명진⑦사법연수원교수

▲김무길③동화은행상무

▲김영선⑤국회의원

▲김정학⑦서울지법서부지원

▲김중건④변호사

▲김창호④현대증권고문

▲김창희②창경실업대표이사

▲김태호⑥국회의원

▲김희중④신탁銀양재동지점

▲나정욱④변호사

▲남상유⑤(주)태웅대표이사

▲도태구⑤변호사

▲문규상⑦서울지검검사

▲문대탄⑥제주신문논설위원

▲문영길⑤변호사

▲민수홍⑤중앙일보편집고문

▲박용일⑦변호사

▲박종웅⑦국회의원

▲박창래⑤변호사

▲박창석⑥감사원보감사관

▲박태출⑥신보창업투자감사

▲서상희⑦삼성물산이사

▲성낙천⑥한국공항공단감사

▲손석주⑥(주)M&R대표

▲신학근⑥변호사

▲심난섭②변호사

▲안민환②유창공영부사장

▲오재덕⑦한화그룹고문

▲유혁근⑥한국신용정보상무

▲이강국⑦서울고법부장판사

▲이건우⑥통상산업부국장

▲이병배⑤재흥회장

▲이병준⑥광주방송대표이사

▲이상문⑦수원지법성남지원

▲이선우⑦변호사

▲이순구⑤부산銀경영혁신단

▲이유영⑦변호사

▲이은우⑥국민은행서부지역

▲이임수④대법원대법관

▲이종상⑤동영증권상임고문

▲이효종③변호사

▲임영민⑥LG텔레콤상무

▲정경용⑥의정부지청검사

▲정지용⑤대림상회사장

▲조동주⑤신한기획대표이사

▲조석제⑤한국유통대표이사

▲조영동⑦방산지업상사사장

▲조희래⑤변호사

▲진영일⑥LG증권사장

▲진의장⑥前시흥세무서장

▲천명기⑤한국식품공업협회

▲천현주⑦한일銀여의도지점

▲최인기⑥수산대총장

▲한창은④우화물산대표이사

▲허 항⑤변호사

▲호문혁⑦서울대학교수

▲홍성민⑦변호사

▲홍순우⑥한국銀외환관리부

▲홍종호③한화에너지대표

▲황창섭⑦전화번호부상무

◇師範大學

▲강병주⑥대연고교장

▲김기환②前서울체육고교

▲김창선⑥한국기독교선교원

▲김충언③서울교육청장학사

▲신홍남⑦대원중학교장

▲이성목⑦서울대학교수

▲이인규⑤진성여중교장

▲이정자⑤예랑사 사장

▲전동기⑤반포고교장

▲정대영⑦선임고교장

▲조건상⑤前충북대명예교수

▲문영길④변호사

▲최영철⑤변호사

◇商科大學

▲강진우⁵⁶롯데쇼핑사장
▲고학모⁶⁰대주무역사장
▲권영대⁶⁰오리엔트해운사장
▲김영근⁶⁸조흥銀검사부
▲김영대⁶⁷한국은행이사
▲김일섭⁶⁸삼일회계법인대표
▲김정태⁷⁰한신증권부사장
▲김중기⁵⁸성원피혁공업대표
▲나길웅⁶⁵은행감독원검사국
▲박가경⁵⁹前금강종합건설
▲박강홍⁶⁵대우조선사무
▲박종한⁵³단국대 명예교수
▲송삼석⁵²(주)모나미회장
▲송세창⁵⁷나산종합건설대표
▲신양우⁷⁴두산제철상무
▲유병현⁶¹한불종합금융대표
▲유장희⁶³대외경제정책연구
▲유충식⁶¹동아제약대표이사
▲이계식⁶²하성상호신용금고
▲이기용⁶⁸경방총무부이사
▲이승은⁵⁷공인회계사
▲이승구⁶⁵에림인터내셔널
▲이용언⁶⁵롯데건설상무이사
▲장종록⁶³은성사기술고문
▲전영배⁵⁸대성전기공업감사
▲전영수⁵⁵주택경제연구고문
▲전장원⁶⁰경남기업부사장
▲정교관⁶¹다림원 원장
▲정찬준⁵⁵대운상운대표이사
▲최수일⁶¹대원산업개발사장
▲최진석⁶²한국가스공사고문
▲추한식⁵⁸마산시민버스대표
▲탁갑근⁷⁵동성교역상무이사
▲홍승희⁴¹성곡학술문화재단
▲황영기⁷⁵삼성전자상무

◇獸醫科大學

▲이수걸⁶⁶울산시청축산과
▲정대연⁵⁹춘성가축병원장
▲조영웅⁶⁷대한수의사회
▲차종상⁶⁰증량가축약품대표
▲채수운⁶⁹축협중앙회

◇藥學大學

▲권경곤⁶⁰현암약국
▲김동춘⁵⁹前대원제약부회장
▲김용길⁶⁴영일약품대표이사
▲김홍대⁵⁹동진약국
▲서한익⁶⁶초당약품전무이사
▲양준호⁴⁵경남제약회장
▲이대갑⁶⁷참약국
▲임경택⁶⁷동아대교수
▲임승중⁷⁹임승진약국 약사
▲주춘대⁵⁸반도제약전무이사
▲홍정근⁵³前불암약국

◇音樂大學

▲백남옥⁶⁹경희대교수
▲양은희⁷⁵상명대교수
▲이성천⁶⁵서울대교수

◇醫科大學

▲강태웅⁵⁷원자력병원장
▲김갑득⁷⁶경향병원신경외과
▲김경식⁷⁴신경정신과의원장
▲김영민⁶²서울대교수
▲김풍명⁶⁷명피부과의원장
▲남궁은⁵⁰남궁외과의원장
▲박명욱⁷⁷성형외과의원장
▲박창서⁷⁷국립의료원

▲방덕환⁵⁹고한성심의원장
▲양진목⁶⁹제중의원장
▲엄익부⁶⁴엄산부인과의원장
▲오창학⁷⁴산부인과의원장
▲윤근철⁷⁹서울중앙병원
▲이규환⁶⁰안양신경정신병원
▲이명욱⁷¹해화진단방사선과
▲전순영⁷¹정형외과의원장
▲최용목⁶⁷경희대교수
▲최준호⁷⁵피부비뇨기과의원

◇齒科大學

▲강기봉⁶⁰강치과의원장
▲김기현⁶⁰마산치과의원장
▲김명원⁵⁴치과의원장
▲김평일⁷²강남치과의원장
▲남수현⁷⁷남치과의원장
▲문복강⁶⁸치과의원장
▲박상근⁷³박치과의원장
▲박재중⁵⁵서울상아치과의원
▲신경호⁴¹치과의원장
▲안병근⁶⁸한강성심병원과장
▲오춘규⁶⁸치과의원장
▲윤홍렬⁶⁵상아치과의원장
▲이미대⁶⁹현대치과의원장
▲이후승⁶⁷치과의원장
▲임채균⁵⁷치과의원장
▲장지상⁵⁵치과의원장
▲정원용⁵⁸치과의원장
▲정종평⁶⁹서울대교수
▲조행작⁷⁰치과의원장
▲한남수⁶⁷치과의원장
▲현천섭⁵⁹현치과의원장

◇大學院

▲장경찬⁸⁰법률사무소 변호사

◇保健大學院

▲전금자⁷⁴前대한간호협회
▲한서경⁶⁷

◇行政大學院

▲김경제⁷²산업기술교육센터
▲김석준⁷⁵이화여대교수
▲백상승⁷¹민족통일협의회장
▲이창세⁶¹아세아문화사회장
▲조남호⁷³서초구청장
▲최상철⁶⁴서울대교수

◇국가정책과정

▲조진형³⁶국회의원

일	반
---	---

◇人文大學

▲강현구⁸⁶ ▲김상구⁹⁴
▲김용재⁹¹ ▲김지원⁹⁴
▲박덕준⁸⁷ ▲서경석⁹⁶
▲연재호⁸⁶ ▲윤 용⁸⁷
▲이상걸⁸⁵ ▲임재규⁹⁴
▲장연중⁷⁷ ▲정준모⁹⁶
▲정혜경⁸⁷ ▲조병식⁸²
▲최남재⁸⁹ ▲황종오⁸⁹

◇社會科學大學

▲강순구⁷⁶ ▲김교문⁷⁷
▲김석완⁸⁹ ▲김재천⁷⁷
▲박영수⁸⁷ ▲서헌기⁸⁷
▲송현중⁸⁷ ▲유시량⁸⁰
▲이광오⁷⁹ ▲이동한⁸¹
▲이상용⁷⁸ ▲이용달⁹²
▲전세경⁸⁷ ▲전재범⁸⁷

▲조진완⁸⁵ ▲최광해⁷⁸
▲최원익⁷⁸ ▲황선웅⁷⁶

◇自然科學大學

▲김원근⁸⁹ ▲안주홍⁸⁴
▲이은경⁸¹ ▲이창진⁹⁵
▲정인재⁸⁶ ▲홍종인⁸²

◇家政大學

▲명복현⁶⁰ ▲송인영⁷⁵
▲정민자⁸² ▲최윤정⁹⁴

◇看護大學

▲박정운⁸⁰

◇經營大學

▲김경우⁹³ ▲김점곤⁸⁴
▲김태현⁸⁹ ▲김학수⁸⁰
▲남익현⁸⁵ ▲박병환⁹⁴
▲전기환⁸⁸ ▲전홍근⁹²
▲조한송⁷⁷ ▲태정호⁹²

◇工科大學

▲강구선⁶⁷ ▲강근배⁷⁴
▲강부식⁹⁰ ▲강선교⁹⁶
▲강송구⁷⁵ ▲강현석⁶⁸
▲강호중⁷¹ ▲고경현⁸⁰
▲구윤모⁷⁵ ▲권영필⁷⁵
▲김 연⁵⁶ ▲김경석⁸²
▲김경수⁷⁰ ▲김광현⁷⁵
▲김문수⁶⁴ ▲김병열⁷⁹
▲김병욱⁸⁰ ▲김병제⁵⁶
▲김봉일⁶⁴ ▲김석준⁷³
▲김성만⁷² ▲김성찬⁶⁰
▲김영기⁸¹ ▲김영문⁶⁴
▲김영현⁷⁹ ▲김완수⁸²
▲김자영⁷⁸ ▲김재수⁸⁹
▲김재영⁶⁹ ▲김재창⁶⁹
▲김재혁⁸² ▲김종량⁸⁶
▲김종민⁷⁸ ▲김종억⁶⁶
▲김종태⁶⁸ ▲김주철⁹⁰
▲김진경⁷⁵ ▲김진영⁷²
▲김한석⁹⁰ ▲김형기⁶⁵
▲김희철⁹¹ ▲남용민⁷⁹
▲모정훈⁹³ ▲문장석⁹¹
▲민승기⁹³ ▲박기도⁶⁷
▲박동진⁷¹ ▲박동현⁷⁹
▲박두화⁵⁵ ▲박상진⁸²
▲박상휘⁶⁹ ▲박영준⁷⁵
▲박용환⁹⁰ ▲박이관⁶²
▲백재성⁹⁴ ▲박정훈⁹⁵
▲박종명⁷⁹ ▲박주석⁸⁷
▲박찬국⁶⁵ ▲박희영⁹⁵
▲변영삼⁸¹ ▲부창렬⁸¹
▲서전석⁸¹ ▲서흥원⁹¹
▲선우식⁸⁰ ▲성민영⁹⁵
▲손해진⁸² ▲송양호⁵⁸
▲송완근⁵⁸ ▲송호근⁷⁶
▲신동목⁸⁴ ▲신동열⁷⁴
▲신동현⁸¹ ▲신영수⁶⁴
▲심봉섭⁶⁸ ▲심오섭⁸¹
▲안광근⁸⁰ ▲안광모⁹⁴
▲안지수⁹³ ▲안철수⁷⁹
▲안호순⁴⁸ ▲양진호⁹⁶
▲오대식⁹¹ ▲오창석⁷³
▲우만현⁹⁴ ▲우준석⁹⁰
▲유남열⁹⁵ ▲유동수⁷⁴
▲유현일⁶¹ ▲윤재수⁹²
▲윤한상⁵³ ▲은용순⁹⁴
▲이경기⁵⁹ ▲이경환⁷⁰
▲이계환⁶⁶ ▲이국종⁶⁰
▲이근재⁹⁵ ▲이덕열⁸¹

▲이득웅⁷⁴ ▲이방원⁹³
▲이범익⁶⁸ ▲이상호⁹³
▲이성오⁵⁶ ▲이성오⁸²
▲이수곤⁶⁴ ▲이영일⁷⁵
▲이영주⁹³ ▲이오재⁹²
▲이용선⁵⁶ ▲이인수⁷⁹
▲이재운⁷³ ▲이정우⁶⁹
▲이제근⁶² ▲이종래⁶¹
▲이종산⁸³ ▲이중호⁷⁴
▲이진우⁵⁴ ▲이창복⁶¹
▲이철호⁸³ ▲이호림⁶¹
▲이호현⁵⁵ ▲이홍재⁸⁰
▲임석현⁹⁵ ▲임성은⁶¹
▲장영수⁹¹ ▲장정호⁹⁵
▲전상조⁶³ ▲정낙현⁸⁹
▲정대환⁶⁹ ▲정동운⁶⁵
▲정두희⁹¹ ▲정부교⁷⁹
▲정승욱⁹⁵ ▲정원열⁵⁶
▲정연호⁸⁰ ▲정영근⁸⁷
▲정인용⁵² ▲정자철⁸²
▲정충선⁶⁴ ▲조무제⁹¹
▲조진래⁷⁸ ▲진남국⁷³
▲최 연⁵⁹ ▲최경영⁸⁷
▲최석경⁹¹ ▲최우석⁹⁵
▲최장원⁹⁵ ▲최재병⁵⁶
▲최충기⁶³ ▲하민진⁷⁶
▲한기석⁶⁵ ▲한성진⁷⁹
▲한순우⁹⁵ ▲한영진⁸³
▲한완균⁸⁵ ▲허길수⁶⁶
▲허성구⁷³ ▲황남규⁵⁵
▲황정현⁹⁶ ▲황준석⁸³

◇農科大學

▲구천서⁶⁰ ▲권종석⁸⁴
▲김관진⁷³ ▲김기곤⁶⁷
▲김병우⁸⁵ ▲김상조⁷⁹
▲김성낙⁸⁶ ▲김순규⁶⁹
▲김영식⁷⁰ ▲김인성⁸²
▲나해관⁸⁹ ▲류청산⁸⁹
▲박명규⁵⁷ ▲박홍석⁶⁹
▲서택동⁸⁰ ▲성봉제⁶²
▲성용훈⁵⁶ ▲손세호⁵⁷
▲신경수⁸⁸ ▲신창근⁸²
▲유명하⁶⁶ ▲유승렬⁵⁷
▲유영산⁶⁸ ▲유현석⁹⁰
▲윤성환⁸⁸ ▲윤호병⁷²
▲이계형⁷⁸ ▲이규형⁵⁴
▲이기복⁵⁷ ▲이기중⁶⁵
▲이명희⁹¹ ▲이상구⁵⁸
▲이상용⁶⁵ ▲이어연⁵⁶
▲이종록⁴⁹ ▲이중화⁵⁵
▲이중훈⁵⁴ ▲이진호⁶⁵
▲이해중⁵² ▲이현범⁶¹
▲장낙연⁵⁹ ▲정병현⁶⁶
▲지근진⁶⁴ ▲최공주⁶⁷
▲최영규⁶⁹ ▲최윤림⁷⁷
▲최윤용⁶³ ▲한상률⁷⁶
▲한인규⁵⁶ ▲황철갑⁶¹

◇文理科大學

▲강대균⁶³ ▲강주국⁵²
▲고병국⁵⁰ ▲곽명규⁶⁸
▲권동석⁶² ▲김규완⁶³
▲김병진⁷³ ▲김상욱⁷²
▲김송현⁶⁴ ▲김영규⁶⁶
▲김영도⁵⁶ ▲김영작⁶⁴
▲김영진⁵⁷ ▲김용태⁷⁴
▲김의종⁷⁰ ▲김정환⁶⁶
▲김준영⁵⁶ ▲김채운⁵⁶
▲김판우⁴⁹ ▲김한배⁷¹
▲김형렬⁶¹ ▲김호준⁶⁵
▲김홍윤⁶⁸ ▲남궁원⁶⁵

▲남기상⁵⁶ ▲노평식⁵⁸
▲도일규⁶⁹ ▲민석홍⁴⁸
▲박정운⁷⁴ ▲방성룡⁷²
▲백두현⁶¹ ▲서문장⁷⁰
▲서종호⁶¹ ▲성백능⁴⁸
▲송석훈⁶⁵ ▲신규철⁵⁷
▲안병근⁷⁴ ▲안현수⁷³
▲엄규백⁵⁶ ▲오임렬⁵⁶
▲오재규⁵² ▲오현승⁶⁹
▲유경하⁶⁴ ▲윤옥영⁶¹
▲윤용식⁶⁴ ▲윤정옥⁵⁶
▲이경구⁴⁸ ▲이구철⁵⁹
▲이우석⁵⁷ ▲이우용⁶⁸
▲이의호⁶⁵ ▲이재두⁵⁰
▲이준모⁷⁰ ▲이충희⁵⁸
▲이평우⁵⁶ ▲인치택⁶⁰
▲전도율⁵⁹ ▲정용승⁶²
▲정재건⁶⁹ ▲조병창⁵⁷
▲조완규⁵² ▲조준희⁶⁵
▲지명렬⁵² ▲차미려⁷²
▲최시중⁶³ ▲최정도⁶⁶
▲하재룡⁷² ▲홍성원⁵⁷
▲황인광⁶⁷ ▲황필호⁶²

◇美術大學

▲고을한⁶² ▲김경애⁸⁷
▲김기미⁸⁵ ▲김선미⁹³
▲박미순⁷² ▲박민여⁶⁶
▲박소영⁷⁷ ▲서경덕⁷⁶
▲유병수⁶³ ▲유수연⁸⁹
▲이기향⁷⁹ ▲이지희⁵⁸
▲임상진⁶⁰ ▲진경수⁶⁶
▲허철성⁶⁷

◇法科大學

▲강성목⁶⁶ ▲강영규⁵²
▲강정남⁶⁶ ▲경수근⁸³
▲곽종수⁶⁸ ▲곽태훈⁷⁶
▲구남수⁸⁵ ▲구충희⁵²
▲길병위⁷² ▲김기경⁹⁰
▲김문곤⁶² ▲김사영⁸⁰
▲김수목⁸⁷ ▲김영환⁸⁸
▲김재광⁸⁸ ▲김종백⁷⁷
▲김찬동⁵⁷ ▲김대병⁸⁹
▲문광삼⁷⁴ ▲문광섭⁸⁹
▲문택상⁶⁴ ▲박경수⁵¹
▲박태석⁸¹ ▲변동훈⁵⁷
▲서복현⁸⁰ ▲손태호⁸⁰
▲송영철⁸⁴ ▲송재현⁶⁴
▲송진원⁶³ ▲안원모⁷⁷
▲엄창섭⁶³ ▲여남구⁸⁵
▲오영진⁶⁹ ▲유치석⁸⁸
▲유호민⁶⁷ ▲윤만준⁷⁰
▲윤의선⁶² ▲이 현³⁷
▲이근원⁶⁰ ▲이동성⁶⁶
▲이수경⁶¹ ▲이승환⁵⁹
▲이영학⁶² ▲이지우⁶⁴
▲이지희⁶⁶ ▲임경윤⁸¹
▲장석민⁶¹ ▲정기승⁷⁸
▲정병대⁸² ▲정재호⁷²
▲조정규⁷³ ▲진성철⁸⁶
▲최수만⁶⁶ ▲최영현⁸⁸
▲최우식⁶³ ▲한익수⁸²
▲함영섭⁶¹ ▲현운석⁶⁸
▲황규련⁸⁶ ▲황문성⁸¹

◇師範大學

▲강승호⁷¹ ▲강신포⁷⁵
▲강의식⁵⁷ ▲구준희⁶⁰
▲권태원⁶⁷ ▲김권수⁵⁶
▲김규봉⁷⁶ ▲김달우⁸¹
▲김삼순⁴³ ▲김석민⁶²

▲김영근⁶⁴ ▲김재홍⁷⁰
▲김학기⁵⁰ ▲김학수⁵⁷
▲김흥기⁵⁷ ▲류경숙⁸³
▲박영석⁸⁹ ▲박재근⁶⁵
▲박정일⁶⁴ ▲박종채⁷¹
▲박주해⁵⁵ ▲박희천⁶³
▲손병규⁵⁵ ▲송대량⁶⁴
▲송춘영⁴⁰ ▲신기호⁶⁰
▲신정옥⁶⁵ ▲안교한⁸⁰
▲양희봉⁷⁶ ▲오기세⁸⁰
▲오인영⁵⁵ ▲원대식⁶²
▲유민원⁶⁴ ▲이덕환⁵⁷
▲이승운⁷⁷ ▲이점숙⁴⁴
▲이정선⁷⁷ ▲이지홍⁵⁶
▲이창환⁷⁰ ▲이현영⁶⁰
▲임억규⁵⁷ ▲임영희³⁹
▲장동우⁷⁶ ▲정병현⁷⁷
▲정영호⁵⁶ ▲정우상⁵⁷
▲정인형⁶⁹ ▲정정현⁵⁶
▲정진의⁶¹ ▲조강민⁶⁰
▲주기성⁷⁶ ▲주덕중⁶⁰
▲최병호⁶¹ ▲최영목⁴⁹
▲최운식⁶⁷ ▲하영호⁶⁰
▲한수인⁵⁷ ▲형남규⁷¹
▲홍보업⁶⁰ ▲홍성흙⁵²
▲황인실⁸⁸

◇商科大學

▲계영희⁵⁹ ▲구원흥⁶⁹
▲권태운⁵² ▲김덕윤⁶⁹
▲김동인⁷⁰ ▲김사홍⁶²
▲김성욱⁷⁵ ▲김세택⁷¹
▲김재관⁶⁵ ▲김종민⁶⁹
▲김주남⁵⁴ ▲김철영⁷⁴
▲박영희⁷³ ▲박효민⁷¹
▲박홍제⁷⁵ ▲변영일⁶⁵
▲서재인⁷⁰ ▲손명환⁶⁵
▲송인웅⁶⁷ ▲심재윤⁷¹
▲어윤봉⁶² ▲오홍근⁷³
▲우영주⁶⁷ ▲원혁희⁵¹
▲윤시병⁵¹ ▲윤영섭⁷⁰
▲이 풍⁶⁶ ▲이 활⁷²
▲이종석⁵⁹ ▲이진무⁶⁵
▲이철영⁶⁸ ▲이헌출⁷²
▲정규영⁷⁰ ▲정봉수⁷⁰
▲정진홍⁴⁹ ▲정하용⁷³
▲최남규⁶⁴ ▲최상순⁶⁹

◇獸醫科大學

▲공창욱⁶⁴ ▲김주성⁵⁸
▲김창윤⁵⁷ ▲김창호⁵⁷
▲서창우⁶⁷ ▲승원우⁷⁵
▲이양성⁶² ▲이종덕⁶²
▲이한길⁶⁵ ▲정의조⁶⁸

◇藥學大學

▲공영욱⁷⁶ ▲길이룡⁸⁹
▲김득구⁵² ▲김혜석⁷⁸
▲김희모⁶² ▲박원규⁷⁵
▲서은경⁸⁹ ▲오경선⁵⁵
▲오영자⁵⁹ ▲윤의섭⁵⁸
▲이기희⁷⁷ ▲이재현⁴⁸
▲장봉수⁶⁵ ▲장진룡⁵⁰
▲최진영⁶⁸ ▲한성은⁵⁹
▲홍옥선⁵⁹

◇音樂大學

▲공정원⁹⁶ ▲구분희⁷²
▲문록선⁷⁹ ▲송명익⁴⁸
▲송태균⁶⁵ ▲윤기숙⁸⁶
▲윤진영⁶⁸ ▲이경희⁸⁰
▲이병조⁵⁵ ▲정원순⁸⁹

▲조성근① ▲천정희⑧
▲한기세⑦

◇醫科大學

▲문홍세⑥ ▲박문선⑤⑧
▲박우택② ▲서정범④
▲윤경애⑤ ▲윤광선⑦⑧
▲이규택③ ▲이나미⑤⑧
▲이명희⑦ ▲이용로⑥⑧
▲이찬욱⑤ ▲지형숙⑦⑧
▲최병호⑦ ▲최윤희⑧

◇齒科大學

▲강인수⑥ ▲곽현희⑦⑧
▲김 건⑤ ▲김성준⑧⑨
▲김정태⑦ ▲김종문⑤⑥
▲민병희⑥ ▲박두환⑤⑦
▲박만수⑥ ▲변기정⑦⑧
▲서운석⑦ ▲설동진⑤⑥
▲송광엽⑥ ▲송정보⑥⑦
▲신현규④ ▲양재희⑧⑨
▲이순신⑧ ▲이용팔④⑤
▲이재용⑥ ▲이종훈⑥⑧
▲임재석⑦ ▲전광익⑤⑧
▲전동진⑥ ▲전용구⑧⑨
▲정상철⑧ ▲정인교⑦⑧
▲조장현② ▲조종만⑦⑧
▲한영철⑦ ▲허만욱②
▲홍성팔⑧

◇大學院

▲강성철⑧ ▲김정호⑧⑨
▲민호기⑦ ▲성기욱⑧⑨
▲윤용중⑥ ▲정진석⑦⑧
▲진선주⑥

◇經營大學院

▲김정웅⑦ ▲김홍구⑦⑧
▲안병태⑦ ▲이정부⑦⑧
▲정광호⑦

◇教育大學院

▲현덕규⑦

◇保健大學院

▲문혜리⑦ ▲윤인희⑧⑨
▲전석락⑥

◇行政大學院

▲강병규⑦ ▲김경만⑦⑧
▲김인주⑥ ▲신동천⑥⑧
▲안병주⑥ ▲양창모⑦⑧
▲이채호⑦ ▲이호인⑧⑨
▲장상현⑦ ▲하정봉⑥

◇環境大學院

▲민병욱⑧ ▲배효숙⑧⑨
▲이만형⑧ ▲조태형⑦⑧
▲허준상⑧

◇최고경영자과정

▲강원채① ▲강호정③⑧
▲강희배② ▲고상환⑨
▲고충남⑦ ▲구광길③⑧
▲구기창③ ▲권병좌②⑧
▲권오윤② ▲권용진③⑧
▲권익부③ ▲김광연④⑧
▲김병근④ ▲김석희③⑧
▲김성중⑦ ▲김승안③⑧
▲김승제④ ▲김영천③⑧
▲김영철⑦ ▲김영환④⑧
▲김용배② ▲김윤학④⑧

▲김정국④ ▲김종찬⑤
▲김종협② ▲김준봉⑤
▲김진환⑥ ▲김철한③
▲김한선① ▲김항구④⑧
▲남봉길④ ▲남현일②⑧
▲문병하③ ▲문성균①⑧
▲민경관③ ▲박계동②⑧
▲박기태⑧ ▲박달용④⑧
▲박병익② ▲박성대⑦⑧
▲박영근⑦ ▲박영대①⑧
▲박영환④ ▲박익순①⑧
▲박익준③ ▲박재승④⑧
▲박용언⑥ ▲박현규⑧⑨
▲박형재⑥ ▲방상우⑧⑨
▲배석두③ ▲변형두⑦⑧
▲서종덕⑦ ▲손성택③⑧
▲송양형④ ▲신동태⑤⑧
▲신용무⑥ ▲심장섭④⑧
▲안갑원④ ▲안과순②⑧
▲안세환② ▲안신배⑤⑧
▲여상빈⑥ ▲오무영⑦⑧
▲우영태④ ▲우종보④⑧
▲유명화⑥ ▲유시수⑤⑧
▲유양수③ ▲유재만⑦⑧
▲유재명④ ▲유춘웅⑧⑨
▲윤국현⑥ ▲윤병호⑤⑧
▲윤세인③ ▲윤영호⑧⑨
▲이광노⑤ ▲이기열⑧⑨
▲이길웅③ ▲이득춘⑤⑧
▲이만희③ ▲이명복④⑧
▲이병구⑥ ▲이삼열③⑧
▲이성철⑥ ▲이시원④⑧
▲이신웅② ▲이응상④⑧
▲이인영② ▲이정수⑤⑧
▲이종규② ▲이태교④⑧
▲이현도⑥ ▲이호수⑤⑧
▲이화일③ ▲이훈동②⑧
▲인형무② ▲장병순④⑧
▲장익상⑤ ▲장주상②⑧
▲전종서③ ▲정덕용②⑧
▲정병호⑦ ▲정영식③⑧
▲정진구⑦ ▲정호철⑦⑧
▲조내벽③ ▲조양호②⑧
▲조알벽③ ▲주상길③⑧
▲지종우⑥ ▲최대업③⑧
▲최동문② ▲최병면④⑧
▲최병택⑥ ▲최세창⑦⑧
▲최영주⑦ ▲최진길④⑧
▲최현열③ ▲태석배③⑧
▲한정삼⑤ ▲함태호⑧⑨
▲허 민② ▲허진구②⑧
▲홍명재④ ▲홍병래⑧⑨
▲홍완기⑦ ▲홍원표⑧⑨
▲황병주⑤

▲김정국④ ▲김종찬⑤
▲김종협② ▲김준봉⑤
▲김진환⑥ ▲김철한③
▲김한선① ▲김항구④⑧
▲남봉길④ ▲남현일②⑧
▲문병하③ ▲문성균①⑧
▲민경관③ ▲박계동②⑧
▲박기태⑧ ▲박달용④⑧
▲박병익② ▲박성대⑦⑧
▲박영근⑦ ▲박영대①⑧
▲박영환④ ▲박익순①⑧
▲박익준③ ▲박재승④⑧
▲박용언⑥ ▲박현규⑧⑨
▲박형재⑥ ▲방상우⑧⑨
▲배석두③ ▲변형두⑦⑧
▲서종덕⑦ ▲손성택③⑧
▲송양형④ ▲신동태⑤⑧
▲신용무⑥ ▲심장섭④⑧
▲안갑원④ ▲안과순②⑧
▲안세환② ▲안신배⑤⑧
▲여상빈⑥ ▲오무영⑦⑧
▲우영태④ ▲우종보④⑧
▲유명화⑥ ▲유시수⑤⑧
▲유양수③ ▲유재만⑦⑧
▲유재명④ ▲유춘웅⑧⑨
▲윤국현⑥ ▲윤병호⑤⑧
▲윤세인③ ▲윤영호⑧⑨
▲이광노⑤ ▲이기열⑧⑨
▲이길웅③ ▲이득춘⑤⑧
▲이만희③ ▲이명복④⑧
▲이병구⑥ ▲이삼열③⑧
▲이성철⑥ ▲이시원④⑧
▲이신웅② ▲이응상④⑧
▲이인영② ▲이정수⑤⑧
▲이종규② ▲이태교④⑧
▲이현도⑥ ▲이호수⑤⑧
▲이화일③ ▲이훈동②⑧
▲인형무② ▲장병순④⑧
▲장익상⑤ ▲장주상②⑧
▲전종서③ ▲정덕용②⑧
▲정병호⑦ ▲정영식③⑧
▲정진구⑦ ▲정호철⑦⑧
▲조내벽③ ▲조양호②⑧
▲조알벽③ ▲주상길③⑧
▲지종우⑥ ▲최대업③⑧
▲최동문② ▲최병면④⑧
▲최병택⑥ ▲최세창⑦⑧
▲최영주⑦ ▲최진길④⑧
▲최현열③ ▲태석배③⑧
▲한정삼⑤ ▲함태호⑧⑨
▲허 민② ▲허진구②⑧
▲홍명재④ ▲홍병래⑧⑨
▲홍완기⑦ ▲홍원표⑧⑨
▲황병주⑤

◇태국

▲김석건 ▲김인섭
▲박운영 ▲안경자
▲오정일 ▲이정우
▲정천량 ▲정순성
▲서옥식 ▲임재복
▲박동선 ▲유기희
▲최충주 ▲최광연
▲박병욱 ▲전인숙
▲정기평 ▲최규명

◇시카고

▲1천달러

◇언남고교

▲23만원

◇중외제약

▲최현식 ▲최상호
▲조유섭 ▲최건혁
▲김지배 ▲이용휘
▲이영섭 ▲백두중
▲최학배 ▲조재천
▲홍성선 ▲최중부
▲김학엽 ▲윤동기
▲구본암 ▲권희안
▲김준섭 ▲함은경
▲박동욱 ▲김병영
▲이준용 ▲유승국
▲남웅현 ▲이기호
▲지정옥 ▲서동철
▲김종민 ▲최영길
▲오세웅 ▲고동환
▲서형식 ▲김영미
▲이해영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동원⑧ ▲김순태②⑧
▲박노관① ▲박용기③⑧
▲유재환⑩ ▲이영삼⑤⑧
▲이중광① ▲이창세⑥⑧
▲최상규⑥

◇국가정책과정

▲김 남② ▲김 집⑧
▲김광수④ ▲김남경④⑧
▲김두중③ ▲김상철②⑧
▲김석균③ ▲김성호②⑧
▲김영호⑤ ▲김용수④⑧
▲김익영④ ▲김종승⑥⑧
▲김진기⑦ ▲김진태⑦⑧
▲김한규② ▲김호연⑧⑨
▲남기춘③ ▲노정기③⑧

▲박명규④ ▲박상호①
▲박인중⑤ ▲심광섭⑦⑧
▲안정남③ ▲오종태⑧⑨
▲유영우⑤ ▲유용근③⑧
▲윤용인② ▲윤정식④⑧
▲이광노② ▲이길범④⑧
▲이길암④ ▲이상철③⑧
▲이웅남① ▲이재복②⑧
▲이택형② ▲이흥식③⑧
▲임정삼① ▲장병순④⑧
▲정동성⑥ ▲정동우①⑧
▲정한균② ▲조성두④⑧
▲조영철④ ▲조철권⑥⑧
▲진강현② ▲천세욱⑨⑧
▲한광수③ ▲한호선⑤⑧
▲허성두③ ▲허위구③⑧

◇고급금융과정

▲김광진① ▲김병하③
▲김영준③ ▲김종갑⑦⑧
▲김충기④ ▲변상봉①⑧
▲서영욱④ ▲신상민④⑧
▲안중은② ▲이성희⑥⑧
▲이흥규① ▲조영천①⑧
▲조용주⑤ ▲최경식②⑧
▲최상재①

지 부

◇태국

▲김석건 ▲김인섭
▲박운영 ▲안경자
▲오정일 ▲이정우
▲정천량 ▲정순성
▲서옥식 ▲임재복
▲박동선 ▲유기희
▲최충주 ▲최광연
▲박병욱 ▲전인숙
▲정기평 ▲최규명

◇시카고

▲1천달러

◇언남고교

▲23만원

◇중외제약

▲최현식 ▲최상호
▲조유섭 ▲최건혁
▲김지배 ▲이용휘
▲이영섭 ▲백두중
▲최학배 ▲조재천
▲홍성선 ▲최중부
▲김학엽 ▲윤동기
▲구본암 ▲권희안
▲김준섭 ▲함은경
▲박동욱 ▲김병영
▲이준용 ▲유승국
▲남웅현 ▲이기호
▲지정옥 ▲서동철
▲김종민 ▲최영길
▲오세웅 ▲고동환
▲서형식 ▲김영미
▲이해영

◇최고산업전략과정

▲강동원⑧ ▲김순태②⑧
▲박노관① ▲박용기③⑧
▲유재환⑩ ▲이영삼⑤⑧
▲이중광① ▲이창세⑥⑧
▲최상규⑥

◇국가정책과정

▲김 남② ▲김 집⑧
▲김광수④ ▲김남경④⑧
▲김두중③ ▲김상철②⑧
▲김석균③ ▲김성호②⑧
▲김영호⑤ ▲김용수④⑧
▲김익영④ ▲김종승⑥⑧
▲김진기⑦ ▲김진태⑦⑧
▲김한규② ▲김호연⑧⑨
▲남기춘③ ▲노정기③⑧

◇(주)경방

▲전덕희 ▲이용관
▲이상섭 ▲원세제
▲김길중 ▲김진홍
▲박종원 ▲신현광
▲이준섭

「관악홀의자 실명제」에 동참을!

본회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 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출연자 명단

△金榮鎭(성형외과의원장) △金炫旭(한국은행 총재비서실) △南鍾鎬(선박해양공학연구소) △辛鍾大(인천지검검사) △劉 權(서울백병원 내과) △李秉培(창신화학 회장) △李世昌(센텍인더스트리사장) △趙大衍(변호사)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權相澈(35년 師大卒)
인양전문대 재단이사장



李廷植(55년 文理大卒)
서원대총장



金台淳(56년 農大卒)
건국대교수

〈발급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김갑수⑧ ▲김봉진②
▲박동호④ ▲서남교⑤
▲서선정⑤ ▲심상완⑧
▲윤석진② ▲이기현④
▲이현우⑤ ▲임준호⑥
▲조영인④

◇社會科學大學

▲권세훈④ ▲김석구⑥
▲김인수⑥ ▲송현주⑥
▲안준현⑥ ▲양성수⑤
▲이건욱⑥ ▲이경모③
▲이인아⑥ ▲이호근⑤
▲임병일④ ▲정준영⑥
▲정해주⑥ ▲조갑래③
▲채호석④ ▲최두진⑥

◇自然科學大學

▲김정구⑥ ▲박기수④⑧
▲탁기돈⑥

◇家政大學

▲김정원④ ▲최영희⑦

◇經營大學

▲고형호⑤ ▲구태균④
▲김태하③ ▲김호영④
▲나지홍⑤ ▲박인호③
▲배종훈④ ▲이동섭⑤
▲이성환④ ▲이형주⑤
▲지현열② ▲최영준⑥

◇工科大學

▲강용길⑥ ▲곽종원⑧
▲박평주④ ▲선지웅②
▲성 완⑥ ▲손정원④
▲이종국①

◇農科大學

▲권영남⑥ ▲권혜진③
▲김광호② ▲김기성③
▲김정임⑥ ▲김지연⑥
▲김태집② ▲김혁화⑤
▲류일훈⑤ ▲류정용①
▲민병철⑤ ▲박성순②
▲박영근⑥ ▲박우식⑥
▲박인규⑥ ▲박일권⑤
▲송영은⑥ ▲안형진③
▲엄인철⑥ ▲이미정⑤
▲이영주④ ▲이재훈⑥
▲이정민⑤ ▲이지용④
▲이태훈⑤ ▲이한승⑤
▲이현태⑤ ▲이희섭⑥
▲임언택③ ▲정유진⑥
▲진용수⑥ ▲한재성⑥
▲허동명⑥ ▲황호준⑥

◇文理科大學

▲김대만⑥ ▲박인순④

◇美術大學

▲이계안⑥

◇法科大學

▲고광석⑥ ▲안동완③

◇안보영⑦ ▲하 영⑤

◇師範大學

▲김은설④ ▲김은아⑥
▲박미숙⑤ ▲박민하⑦
▲소현영⑦ ▲송호석④
▲신지영⑥ ▲은선덕③
▲은정태⑤ ▲이관표⑥
▲주상하⑥ ▲천영진⑥

◇獸醫科大學

▲나준호⑥ ▲남정석④
▲윤경아⑥

◇藥學大學

▲김금림⑥

◇音樂大學

▲장원석⑥

◇醫科大學

▲전동수④

◇大學院

▲이화균⑦

◇保健大學院

▲김한상⑥

◇環境大學院

▲안승홍⑥ ▲정상아⑥

◇최고경영자과정

▲김건중③